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목차

| | |
|-----------------------------|----|
| I. 발간사 | 5 |
| II. SDG4(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 6 |
| III. 2021년 SDG4 10대 뉴스 | 20 |
| IV. SDG4 세부목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30 |
| • SDG4.1 (초·중등교육) | 31 |
| •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 38 |
| • SDG4.3 (고등교육) | 43 |
| • SDG4.4 (직무스킬) | 52 |
| • SDG4.5 (교육형평성) | 57 |
| • SDG4.6 (성인 문해·수리력) | 63 |
| • SDG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 70 |
| • SDG4 모니터링 | 77 |
| • 교육 ICT | 82 |
| V. SDG4 국내 주요 연구 및 발간물 | 86 |
| VI. 2021년 SDG4 국제 주요 정책문서 | 93 |

* 일러두기

-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필자의 소속 및 직함은 2021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I. 발간사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를 최초 발간하며

대한민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으로서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의 태동부터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SDG-교육2030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SDG4 이행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9개 교육전문기관이 SDG4-교육2030협의체로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SDG4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SDG4 달성을 위하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제사회의 SDG4 총괄기관으로서 매년 세계교육현황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를 발간하여 주제별로 SDG4 이행을 분석·제언하고 있으며,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세계 SDG4 이행현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10년”을 선포하며, SDGs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 10년간 국제적, 국가적, 기업 및 개인 차원 등 전 부문의 적극적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SDG4-교육2030협의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SDG4 이행 노력을 기록하고, SDG4 모니터링과 이행촉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SDG4에 대한 국내 교육계의 관심과 인식을 확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특히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유관 부서, 그리고 SDG4-교육2030협의체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II. SDG4(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유엔(UN) 총회는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했다. SDGs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 원칙에 따라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아래의 [표1]과 같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2015)를 계승·보완하여, △빈곤해소를 넘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지속가능발전을 개발 담론의 중심으로 두어 보편성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소비, 제도·거버넌스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인식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DG 목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1 | 빈곤 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
| SDG2 | 기아 종식 기아 해결,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
| SDG3 |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
| SDG4 |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 SDG5 | 성평등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 SDG6 |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

| SDG 목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7 |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깨끗한 에너지 접근의 보장 |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
| SDG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
| SDG9 | 산업, 혁신과 인프라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
| SDG10 | 불평등 감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
| SDG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
| SDG12 |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 SDG13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 행동 |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
| SDG14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SDG15 | 육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
| SDG16 |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
| SDG17 | SDGs를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나. SDG4 및 세부목표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국제사회는 2000년부터 이행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목표의 달성을 점검했다. 2030년까지 새로이 달성할 국제사회의 교육의제의 비전과 이행 의지를 담아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형성에 기여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네 번째 목표, 즉 SDG4는 교육분야 목표로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다. SDG4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로 인식될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서, [표2]와 같이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관련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2] SDG4의 10개 세부목표

| 세부목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4.1 | 초·중등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
| SDG4.2 | 영유아 보육·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
| SDG4.3 | 직업기술교육·고등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
| SDG4.4 | 전문·직업기술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
| SDG4.5 | 형평성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
| SDG4.6 | 성인 문해·수리력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
| SDG4.7 |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

| 세부목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4.a | 학습환경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
| SDG4.b | 장학금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선진국이나 타 개발도상국에서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By 2020, substantially expand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for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
| SDG4.c | 교원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다. SDG4 세부지표

2015년 3월, 27개 국가 통계청의 참여로 전문가그룹(IAEG-SDGs)이 구성되어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글로벌 지표 개발을 착수한 이래,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SDG4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통계원(UIS)을 중심으로 2016년 “SDG4-교육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¹(Technical Cooperation Group on the Indicators for SDG 4 – Education 2030; TCG)이 결성되어 SDG4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TCG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개최국으로서 옵서버로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는 SDGs 이행현황을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모니터링하여 전세계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주제별 지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 정책 우선순위, 전문적 역량, 데이터 이용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021년 9월 기준 SDG4 세부지표는 [표3]과 같다.

1. SDG4-교육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TCG):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국제단체 등의 교육분야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4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기술·방법론적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표3] SDG4 세부지표 (2021년 9월 기준)

(* 살구색 바탕 표시는 글로벌 지표, 흰색 바탕은 주제별 지표)

| 세부목표 | 세부지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 1.a | 1.a.gdp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교육지출 비율 |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
| | 1.a.2 |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율 | Proportion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essential services (education) |
| SDG 4.1 초·중등교육 | 4.1.0 |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춘 아동/청소년 비율(성별) | Proportion of children/young people prepared for the future, by sex |
| | 4.1.1 | (a) 초등학교 2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in grades 2/3; (b) at the end of primary;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achieving at least a minimum proficiency level in (i) reading and (ii) mathematics, by sex |
| | 4.1.2 | 교육완수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 Completion rat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
| | 4.1.3 | 최종학년 진급률(초등, 전기중등) | Gross intake ratio to the last grad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
| | 4.1.4 | 학교밖 비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 Out-of-school rate (1 year before primary,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
| | 4.1.5 | 졸업 과연령 아동 비율(초등, 전기중등) | Percentage of children over-age for grade (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
| | 4.1.6 |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의 국가 학습평가 시행 | Administr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earning assessment (a) in Grade 2 or 3; (b) at the end of primary education;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
| | 4.1.7 | 법적으로 보장하는 (a) 무상, (b) 의무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연수(年數) | Number of years of (a) free and (b) compulso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
| SDG 4.2 영유아 보육·교육 | 4.2.1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웰빙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24~59개월 아동의 비율(성별) | Proportion of children aged 24-59 months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health, learn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by sex |

| 세부목표 | 세부지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 4.2.2 |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Participation rate in organized learning (one year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by sex |
| | 4.2.3 |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 비율 |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5 years experiencing positive and stimulating home learning environments |
| | 4.2.4 | 유아교육·보육 총 취학률 | Gross early childhood education enrolment ratio in (a) pre-primary education and (b)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
| | 4.2.5 | 법적으로 보장하는 (a) 무상, (b) 의무 유아교육 연수(年數) | Number of years of (a) free and (b) compulsory pre-primary education guaranteed in legal frameworks |
| SDG 4.3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 4.3.1 |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 Participation rate of youth and adults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
| | 4.3.2 | 고등교육 총 취학률(성별) | Gross enrolment ratio for tertiary education by sex |
| | 4.3.3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15-24세)(성별) | Participation rate in technical-vocational programmes (15- to 24-year-olds) by sex |
| SDG 4.4 전문· 직업기술 | 4.4.1 |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역량 유형별) | 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by type of skill |
| | 4.4.2 | 디지털 문해력의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청소년/성인 비율 | Percentage of youth/adults who have achieved at least a minimum level of proficiency in digital literacy skills |
| | 4.4.3 |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연령집단별, 교육 단계별) | Youth/adult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by age group and level of education |
| SDG 4.5 형평성 | 4.5.1 |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 (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 | Parity indices (female/male, rural/urban, bottom/top wealth quintile and others such as disability status, indigenous peoples and conflict-affected, as data become available) for all education indicators on this list that can be disaggregated |

| 세부목표 | 세부지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SDG 4.5 형평성 | 4.5.2 | a) 초등학교 저학년,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 교육에서 수업 언어가 제1언어 혹은 모국어인 학생 비율 | Percentage of students in a) early grades, b) at the end of primary,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who have their first or home language as language of instruction |
| | 4.5.3 | 소외계층에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재정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 Existence of funding mechanisms to reallocate education resources to disadvantage populations |
| | 4.5.4 | 교육단계 및 교육재원별, 학생1인당 교육지출 |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ing |
| | 4.5.5 | 전체 원조 중 최저소득국가 대상 교육원조 비율 | Percentage of total aid to education allocat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
| SDG 4.6 성인 문해·수리력 | 4.6.1 | 활용 가능한 (a) 문해력과 (b) 수리력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 (성별) | Proportion of population in a given age group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a) literacy and (b) numeracy skills, by sex |
| | 4.6.2 | 청소년/성인 문해율 | Youth/adult literacy rate |
| | 4.6.3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Participation rate of illiterate youth/adults in literacy programmes |
| SDG 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 4.7.1 |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
| | 4.7.2 | 생활양식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 Percentage of schools that provide life skills-based HIV and sexuality education |
| | 4.7.3 |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UNGA 결의 59/113에 따라) | Extent to which the framework on the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is implemented nationally (as per the UNGA Resolution 59/113) |
| | 4.7.4 | 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중학생 비율 | Percentage of students in lower secondary education showing adequate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ing to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

| 세부목표 | 세부지표 | 내용 | 영문 원문 |
|------------------|-------|---|--|
| | 4.7.5 | 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중학생 비율 | Percentage of students in lower secondary showing proficiency in knowled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geoscience |
| | 4.7.6 | 국가교육정책 및 교육분야계획이 향후 국가교육체계에서 향상되어야 할 스킬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 | Extent to whic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and education sector plans recognize a breadth of skills that needs to be enhanced in national education systems |
| SDG 4.a 학습 환경 | 4.a.1 |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서비스별) | Proportion of schools offering basic services, by type of service |
| | 4.a.2 | 최근 12개월에 괴롭힘을 경험한 (a)초등학교, (b)중학교 학생 비율 | Percentage of students experiencing bullying in the last 12 months in a) primary, and b) lower secondary education |
| | 4.a.3 | 학생, 교원, 기관 등에 대한 공격 발생 수 | Number of attacks on students, personnel and institutions |
| SDG 4.b 장학금 | 4.b.1 |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학문 영역 및 분야별) |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scholarships by sector and type of study |
| SDG 4.c 교원 | 4.c.1 | 최소 자격을 충족한 교사의 비율 (교육 단계별) | Proportion of teachers with the minimum required qualifications, by education level |
| | 4.c.2 | 교육 단계별 학생 대비 훈련된 교사 비율 | Pupil-train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
| | 4.c.3 | 교육 단계 및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 | Percentage of teachers qualified according to national standards by education level and type of institution |
| | 4.c.4 | 교육 단계별, 학생 대비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 Pupil-qualified teacher ratio by education level |
| | 4.c.5 | 유사한 교육 수준을 요하는 타 직업 대비 교사의 평균 급여 | Average teacher salary relative to other professions requiring a comparable level of qualification |
| | 4.c.6 | 교육 단계별 교사 감소율 | Teacher attrition rate by education level |
| | 4.c.7 |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 Percentage of teachers who received in-service training in the last 12 months by type of training |

* 출처: 유네스코통계원 (2021년 9월 기준, http://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09/SDG4_indicator_list.pdf)

라. SDG4 국제이행체계:

세계교육협력체계 개편 및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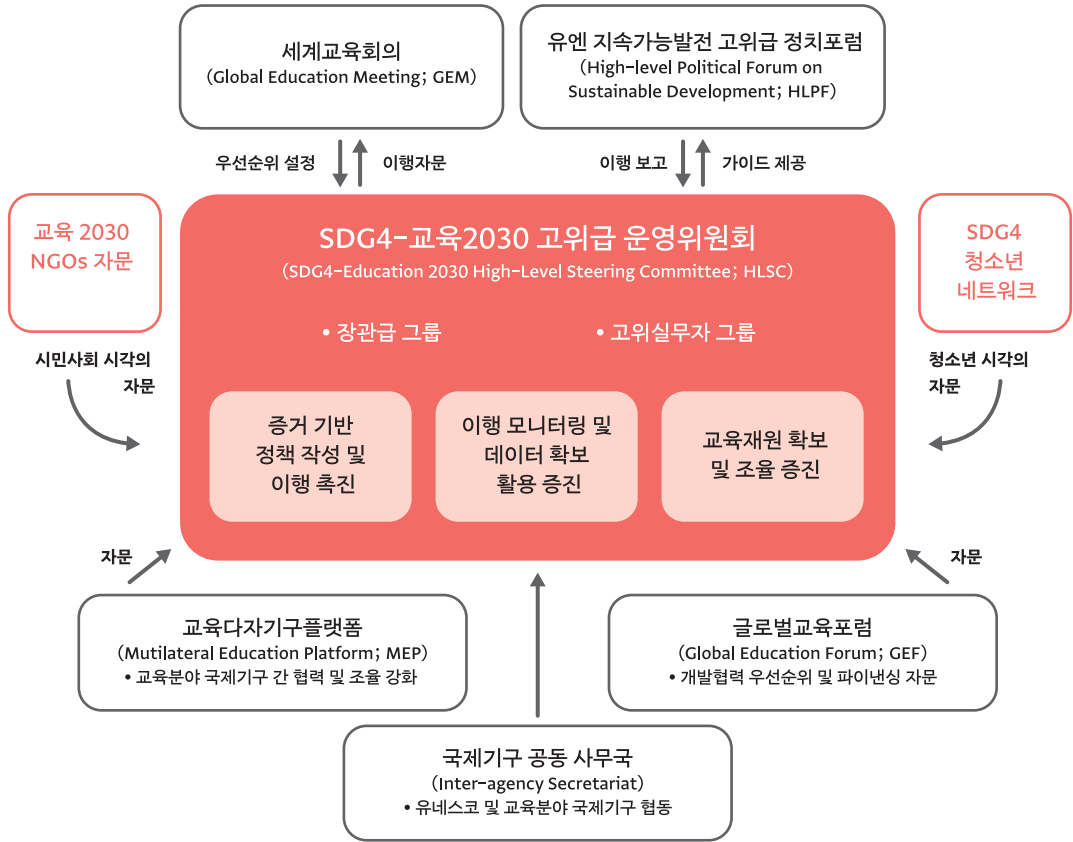
2015 세계교육포럼(Global Education Forum)에서 결정한 SDG4 실행계획에 따라, 유엔의 교육 전문가기구인 유네스코는 SDG4 총괄기구(lead agency for SDG4-Education 2030)로서 역할하고, SDG-교육2030운영위원회(SDG4-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 SC)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함께 SDG4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왔다. SDG-교육2030운영위원회(SC)는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참가했다.

한편 SDG4 이행을 위한 노력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장기화로 그간 이룬 교육분야의 성과마저 퇴행하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어, 2020 세계교육회의는 SDG4 이행 촉진을 위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육협력체계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분야 국제협력의 강화·조율을 위하여, 그간 세계교육협력을 이끌어왔던 SDG-교육2030운영위원회(SC)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네스코와 지역 대표 회원국, 국제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2021년 상반기 동안 활동 후 개편안을 내놓았다. 초기개편안의 골자는 새롭게 “세계교육최고기구(Global Education Apex Body)”를 만드는 것으로, 1) 소규모의 저명인사로 구성하거나 2) 회원국, 다자·지역기구, 비정부기관 등 고위인사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지역별 자문회의, 제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등에서 다수의 회원국은 SDG4 이행의 책임이 각 국가에 있는만큼 많은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국제교육협력체계를 바란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의기구의 설립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 2021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2021.7.13.)는 장관급 그룹과 고위실무자 그룹으로 이원화된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SDG4-Education 2030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HLSC)”를 구성하는 최종개편안을 승인했다.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는 전체 위원수를 기존 44인에서 28인으로 축소하는 한편, 각 회원국 교육부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급 인사와 해당 국가·기관의 고위실무자가 각각 SDG4 논의과정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었고, 2021 세계교육회의 고위급회의(2021.11.10.)를 통해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가 출범했다. (상세구성 [표4] 참조)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는 SDG4 이행 우선순위 및 방향성을 설정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 및 이행을 지원하고, SDG4 이행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교육 재정 확보 효과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SDG4 이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SDG4의 국제이행 관련 2021년 개편된 세계교육협력체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표4]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 (2021년 11월 - 2023년; 2년 임기)

| | |
|---|--|
| <p>구성: 총 28인</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장관 12인 (6개 권역별 2인) ① 서유럽·북미: 프랑스, 포르투갈 ② 동유럽: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③ 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중국 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⑤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 코트디부아르 ⑥ 아랍권: 요르단, 모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등 대표 5인 ① 유네스코 ② 유니세프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④ 세계은행(The World Bank) ⑤ 글로벌교육파트너십(GP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구 대표 6인 (6개 권역별 1인) ① 서유럽·북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② 동유럽: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③ 아시아·태평양: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 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⑤ 아프리카: 아프리카연합 위원회(AUC) ⑥ 아랍권: 아랍연맹 교육·과학·문화기구(ALECS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대표 5인 (시민사회, 교원단체, 민간부문·재단, 학생·청소년, 공여국 대표 각 1인) ① 시민사회: 글로벌교육캠페인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② 교원단체: 국제교원노조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③ 민간부문·재단: 야콥스 재단(Jacobs Foundation) ④ 학생·청소년: SDG4 청년 네트워크 (SDG4 Youth Network) ⑤ 공여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

마. SDG4 국내이행체계

SDG4는 국제, 국가, 지역 등의 모든 층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재단과 같은 민간부문, 시민 사회, 개인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상 국가적 차원에 한정하여 SDG4 국내이행체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교육목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왔다. 한편 2016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제사회가 SDGs를 채택함에 따라, 2018년 정부는 SDGs의 체계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마련하고 “제3차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K-S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은 대국민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포럼, 관계부처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및 보완은 대한민국이 인류 공동의 목표인 SDGs를 한국의 맥락에 적극 반영하여 이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K-SDGs 공동작업반과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K-SDGs는 국가 정책 수행의 결과를 통해 이행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기본계획을 수립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은 K-SDGs의 목표4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세부목표 10개와 지표 28개는 [표5]와 같다. 세부목표의 주요내용은 양질의 초·중등교육 이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 보장,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대 등이다. 특히,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과 교사를 확보하고자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5] K-SDGs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4-1 |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1) 취학을 |
| | |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
| | |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 번호 | 세부목표 | 지표 |
|------|---|--|
| 4-2 |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 4-3 |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 4-4 |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 4-5 |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 4-6 |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2) 성인 문해율 |
| 4-7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 4-8 |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 4-9 |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1) 교육 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 4-10 | 모든 교육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 출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부), pp.48-49.

2) SDG4-교육2030협약체

2015년 SDGs 채택 이후, SDG4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및 촉진을 위하여 2017년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교육전문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SDG4 세부목표별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이를 발전시켜 2018년 5월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하기 표 내용상 순서) 등 10개 교육전문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SDG4-교육2030협약체”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DG4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SDG-교육2030협약체의 사무총괄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협약체의 각 대표기관은 SDG4 세부목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민·관·학 전문가와 함께 SDG4 의제를 논의하고, 모니터링 및 이행촉진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정기회의 2회, 워킹그룹회의 16회, 세미나 6회가 개최되었으며, 국제기구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 설문 등에 SDG4-교육2030협약체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SDG4 분야 상시협력체로서 기능하였다.

[표6] SDG4-교육2030 협약체 구성

| 구분 | SDG4 세부목표 및 전문분야 | 담당기관 |
|--------|---------------------------|---------------------------------------|
| 국가조정관 | - | 교육부 |
| 사무총괄기관 |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대표기관 | SDG4.1 / 초·중등교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SDG4.2 / 영유아교육 | 유아정책연구소 |
| | SDG4.3 / 고등교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SDG4.4 /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SDG4.5 / 교육형평성(여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SDG4.6 / 평생교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SDG4.7 /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APCEI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교육ICT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모니터링 | 한국교육개발원 |

참고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교육2030」
- 임현목·박환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학습목표」
-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부)」
- <http://www.ncsd.go.kr> (2022.1.8.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
- <http://tcg.uis.unesco.org> (2022.1.8. SDG4-교육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
- www.sdg4education2030.org (2022.1.8.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 사무국)
- sdgs.un.org (2022.1.8. 유엔)

III. 2021년 SDG4 10대 뉴스



1.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유엔 “2021 SDG 모멘트” 개최식 연설 (9월 20일)

2021년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1 SDG 모멘트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방탄소년단(BTS)이 개최식 연설에 나섰다. 유엔은 2020년부터 유엔 총회기간 중 특별행사 “SDG 모멘트”를 개최하여 SDGs 우수사례, 향후 과제 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주었다”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연단에 나선 BTS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모든 선택이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 응원을 보냈다.

사진 출처: 뉴욕/AP 연합뉴스



2. 2021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 유은혜 부총리 참가 (7월 13일)

2021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2021 Global Education Meeting 2021 - Ministerial segment)가 2021년 7월 13일 온라인 개최되었다. 90여 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세계교육협력체계 개편안과 지역별 SDG4 목표치가 승인되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접근, △디지털 접근, △성별 교육격차(여아교육), △교육재정 관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한 등교개학 추진과 교직원 우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으로서 인천선언 이행과 SDG4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과 SDG4 이행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SDG4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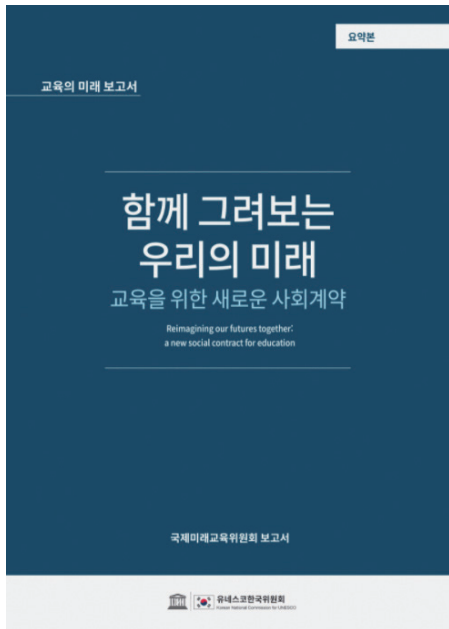
3. 2021 세계교육회의의 고위급회의 (11월 10일)

2021 세계교육회의의 고위급회의(2021 Global Education Meeting – High-Level Segment)가 2021년 11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코로나19 회복 및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세계적 재원마련’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문서로 파리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세계교육협력체계(GCM)를 개편하여 장관급인사 및 고위실무자로 이원화된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를 출범하였다.

파리 선언은 팬데믹 상황 중 전세계적 교육재정 현황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세계적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인천 선언 및 2018·2020 세계교육회의의 결과와 같이 △국내 교육에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4~6%, 공공지출의 최소 15~20%를 할당하고, △공적개발원조(ODA)에 국민총소득(GNI)의 0.7% 할당하며, △교육 ODA의 비중 증가 등을 촉구하는 한편, △각 회원국에 교육예산 증대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모색을 요청했다.

* 파리선언 국문번역본은 본 보고서의 94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유네스코



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발간 (11월 10일)

유네스코가 2019년 발족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2050년까지의 미래교육 방향을 조망하고자 지난 2년 간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며 웨비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세계 시민 백만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일명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2021년 11월 1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인간에게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공공재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현재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도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교육 변혁을 요청한다. 특히 교육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본 보고서가 각 사회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어 요약본을 발간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말 보고서 전문을 국문번역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5. 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 (5월 17-19일)

유네스코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함께 2021년 5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해 배워요,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동해요’를 주제로 사흘간 진행된 이 회의는 전세계 전문가 및 관계자 약 2,800 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차기 ESD 계획인 “ESD for 2030”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1일차는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환영사, 알렉산더 게르트 우주비행사 등의 기조강연으로 개최했다. 이후 각국 교육부 장관의 “ESD for 2030”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2일차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녹색순환경제, 지역과 사람을 주제로 병렬세션이 개최되었고 SDG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SD와 관련된 다채로운 사업 소개 및 활동이 진행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독일위원회는 ‘유네스코 지정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는 회의 결과문서로서 ‘베를린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 베를린 선언문은 본 보고서 9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유네스코



6.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ICLC) (10월 27-30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IL)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ICLC)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된 기존 회의와 달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64개국 229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장과 관계자를 포함 2,300여 명이 참가하여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평생학습과 도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있는 도시 구축’으로, 구체적으로는 1) 평생학습 맥락에서의 건강을 위한 교육, 정신 건강 및 웰빙의 이해, 2) 도시의 학습 시스템 및 커뮤니티 회복력 강화, 3) 건강과 웰빙을 위한 장(場)으로서 전환되는 도시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첫날 27일 열린 GNLC 학습도시상 시상식에서는 경기도 오산시를 포함 총 10개 도시가 수상하였으며, 29일에는 평생학습을 통한 도시의 건강과 웰빙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 선언’이 채택되었다.

* 연수 선언문은 본 보고서 10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7.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 변혁교육 이행 — 어디까지 왔는가?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이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교육부와 외교부가 공동개최한 이 포럼에는 전세계 3,000명의 전문가 및 교육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세부목표 4.7을 “변혁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변혁교육 이행 -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변혁교육에 대한 국가별 우수 사례 및 성과, 국제·지역 차원의 데이터 및 모니터링,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 및 변혁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 변혁교육의 공동창조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사진 출처: 유네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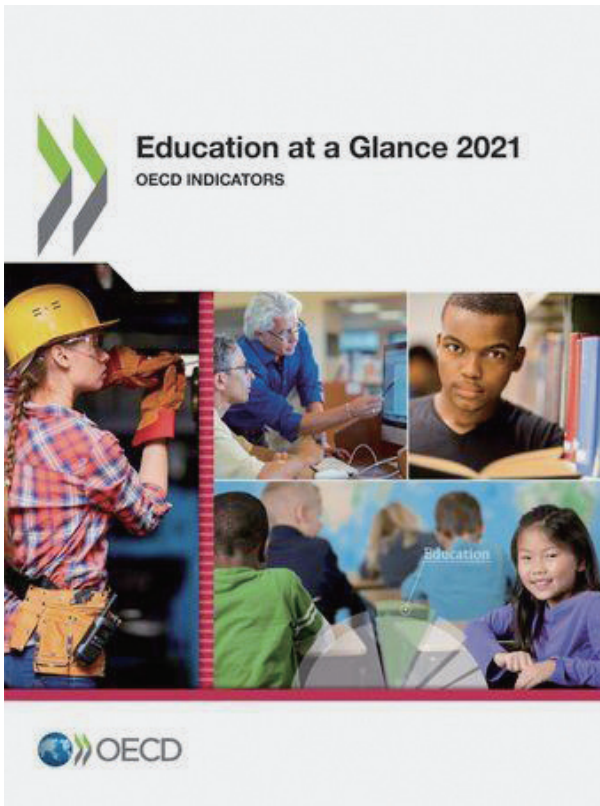


8.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 (12월 9-10일)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이 2021년 12월 9-1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본 포럼은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우리의 교육 경험과 SDG4 이행,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를 주제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시게루 아오야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2일차에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교육개발협력(ODA)과 SDG4’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교육위기를 고려하여 기존의 “제5회 SDG4-교육2030 포럼”(2017~)과 “제8회 교육 ODA 컨퍼런스”(2014~)를 연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SDG4 국내·외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모색할 수 있었다.

* 본 포럼 자료집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9. 2021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발간 (9월 1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1 OECD 교육지표”를 9월 16일 발간했다. OECD는 회원국 등의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시스템 및 성과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데이터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특히 교육 형평성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었다. SDG4.5 관련 OECD 국가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록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 국가 및 지역 등의 요소가 학습 및 직업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다루고 있다.

* 본 자료의 국문번역본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OECD



10. 유네스코 “2021/22 세계교육현황보고서” 발간

유네스코는 12월 10일 교육분야의 비정부행위자(non-state actors)를 주제로 2021/22 세계교육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네스코는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교육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SDG4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교육업체, 민간부문, NGO, 재단 등 교육분야의 비정부 행위자와 관련된 세계교육현황을 조망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와 공교육의 역할을 되짚고, 교육의 질과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든 교육 기관, 학생, 교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련 규범, 정보, 인센티브, 책무성을 활용하여 교육권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2년 상반기 중 보고서 요약본을 국문번역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유네스코

IV. SDG4 세부목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 SDG4.1 (초·중등교육)
-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 SDG4.3 (고등교육)
- SDG4.4 (직무스킬)
- SDG4.5 (교육형평성)
- SDG4.6 (성인 문해·수리력)
- SDG4.7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 SDG4 모니터링
- 교육 ICT

SDG4.1(초·중등교육)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경숙 대외협력실장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SDG4를 구성하는 세부 실행 목표 중 SDG4.1은 초·중등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부목표로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목표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국제 수준에서 이행되는 학생 평가 결과를 지표로 참조하여 SDG4.1 세부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습 성과 모니터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 수준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로, 정부는 이 평가가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로,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해 정부가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다음은 2016-2020년 5년간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성취수준(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¹ 비율을 보여준다.

2021년에 발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중학생 10,653명, 고등학생 10,526명). 교과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학력이상(3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기초학력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력 격차를 비롯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학습 결손 및 공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력 제고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성취수준: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미달)

<학년별,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단위 : %]>

| |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
| |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영어 |
| 중3 | 보통학력 이상 | 90.1 | 68.2 | 74.7 | 84.9 | 67.6 | 72.6 | 81.3 | 62.3 | 65.8 | 82.9 | 61.3 | 72.6 | 75.3 | 57.8 | 63.9 |
| | 기초학력 | 7.9 | 26.9 | 21.3 | 12.5 | 25.3 | 24.2 | 14.3 | 26.6 | 28.9 | 13.0 | 26.9 | 24.1 | 18.2 | 28.9 | 28.9 |
| | 기초학력 미달 | 2.0 | 4.9 | 4.0 | 2.6 | 7.1 | 3.2 | 4.4 | 11.1 | 5.3 | 4.1 | 11.8 | 3.3 | 6.4 | 13.4 | 7.1 |
| 고2 | 보통학력 이상 | 83.7 | 77.8 | 85.7 | 75.1 | 75.8 | 81.5 | 81.6 | 70.4 | 80.4 | 77.5 | 65.5 | 78.8 | 69.7 | 60.8 | 76.7 |
| | 기초학력 | 13.0 | 16.9 | 9.1 | 19.9 | 14.3 | 14.4 | 15.0 | 19.2 | 13.4 | 18.5 | 25.5 | 17.6 | 23.4 | 25.7 | 14.7 |
| | 기초학력 미달 | 3.3 | 5.3 | 5.2 | 5.0 | 9.9 | 4.1 | 3.4 | 10.4 | 6.2 | 4.0 | 9.0 | 3.6 | 6.8 | 13.5 | 8.6 |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별 세부 성취수준은 구체적으로 별도 제시, ‘4수준·1수준’으로 평어 개선*
(기존)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 (개선) 4, 3, 2, 1수준 (2019년 고교 적용 → 2020년 중3 적용)

※ 반올림으로 인해 비율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수준에서의 학습성과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행과 학업 성취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국제 수준의 학습 성과 모니터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학습 능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영역에서 기본 수준을 달성한 학생의 비율을 파악해 각국이 국가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PISA는 대표적인 역량 기반 평가로, 2000년 32개국으로 시작했으나 주기를 거듭하면서 참여국 수도 현저하게 늘어나 2018년에는 79개국이 참여했다. PISA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지적 영역 중 핵심 영역인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대한 소양(literacy), 즉 ‘각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효과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고 추론하며 의사소통하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주기별 성취 변화는 다음과 같다.

<PISA 주기별 우리나라의 학생 성취 변화(평균 점수와 순위)>

| 연구주기(OECD 회원국 수/ 전체 참여국 수) | | PISA 2000 (28/43) | PISA 2003 (30/41) | PISA 2006 (30/57) | PISA 2009 (34/75) | PISA 2012 (34/65) | PISA 2015 (35/72) | PISA 2018 (37/79) | |
|-------------------------------|-------|-------------------------|-------------------------|-------------------------|-------------------------|-------------------------|-------------------------|-------------------------|------|
| 읽기 | 평균 점수 | 525 | 534 | 556 | 539 | 536 | 517 | 514 | |
| | 순위 | OECD | 6 | 2 | 1 | 1~2 | 1~2 | 3~8 | 2~7 |
| | | 전체 | 7 | 2 | 1 | 2~4 | 3~5 | 4~9 | 6~11 |
| 수학 | 평균 점수 | 547 | 542 | 547 | 546 | 554 | 524 | 526 | |
| | 순위 | OECD | 2 | 2 | 1~2 | 1~2 | 1 | 1~4 | 1~4 |
| | | 전체 | 3 | 3 | 1~4 | 3~6 | 3~5 | 6~9 | 5~9 |
| 과학 | 평균 점수 | 552 | 538 | 522 | 538 | 538 | 516 | 519 | |
| | 순위 | OECD | 1 | 3 | 5~9 | 2~4 | 2~4 | 5~8 | 3~5 |
| | | 전체 | 1 | 4 | 7~13 | 4~7 | 5~8 | 9~14 | 6~10 |

PISA는 2000년에 시작된 이래 3년 주기로 매 주기마다 핵심 영역인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을 평가하는데, 각 주기에서는 이 세 영역 중 하나를 읽기-수학-과학 순으로 주영역으로 설정한다. 가장 최근에 평가가 시행된 때는 2018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에 차기 본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PISA에서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대한 소양(literacy)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6수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2수준 이상을 기초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2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 즉 2~6수준까지의 학생 비율로 지표를 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주기별 PISA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수준 비율을 보여준다.

<읽기 소양 성취수준 비율 추이 [단위 : %]>

| 연구주기 | 2000 | 2003 | 2006 | 2009 | 2012 | 2015 | 2018 |
|--------|------|------|------|------|------|------|------|
| 수준 | | | | | | | |
| 6수준 | - | - | - | 1.0 | 1.6 | 1.9 | 2.3 |
| 5수준 | 5.7 | 12.2 | 21.7 | 11.9 | 12.6 | 10.8 | 10.8 |
| 4수준 | 31.1 | 30.8 | 32.7 | 32.9 | 31.0 | 25.5 | 24.6 |
| 3수준 | 38.8 | 33.5 | 27.2 | 33.0 | 30.8 | 28.9 | 27.6 |
| 2수준 | 18.6 | 16.8 | 12.5 | 15.4 | 16.4 | 19.3 | 19.6 |
| 2수준 미만 | 5.7 | 6.8 | 5.8 | 5.8 | 7.6 | 13.7 | 15.1 |

<수학 소양 성취수준의 비율 추이 [단위 : %]>

| 수준 \ 연구주기 | 2003 | 2006 | 2009 | 2012 | 2015 | 2018 |
|-----------|------|------|------|------|------|------|
| 6수준 | 8.1 | 9.1 | 7.8 | 12.1 | 6.6 | 6.9 |
| 5수준 | 16.7 | 18.0 | 17.7 | 18.8 | 14.3 | 14.4 |
| 4수준 | 25.0 | 25.5 | 26.3 | 23.9 | 22.7 | 22.9 |
| 3수준 | 24.1 | 23.5 | 24.4 | 21.4 | 23.7 | 23.4 |
| 2수준 | 16.6 | 15.2 | 15.6 | 14.7 | 17.2 | 17.3 |
| 2수준 미만 | 9.6 | 8.8 | 8.1 | 9.1 | 15.4 | 15.0 |

<과학 소양 성취기준의 비율 추이 [단위 : %]>

| 수준 \ 연구주기 | 2006 | 2009 | 2012 | 2015 | 2018 |
|-----------|------|------|------|------|------|
| 6수준 | 1.1 | 1.1 | 1.1 | 1.4 | 1.8 |
| 5수준 | 9.2 | 10.5 | 10.6 | 9.2 | 10.0 |
| 4수준 | 25.5 | 30.4 | 30.1 | 24.0 | 24.5 |
| 3수준 | 31.8 | 33.1 | 33.6 | 29.2 | 28.6 |
| 2수준 | 21.2 | 18.5 | 18.0 | 21.7 | 21.0 |
| 2수준 미만 | 11.2 | 6.3 | 6.6 | 14.4 | 14.2 |

PISA 영역별 성취수준 비율에 의하면,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최소성취기준이상 학생 비율, 즉 2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각각 84.9%, 85.0%, 85.8%로 3개 영역 평균은 85.2%이며, 2030년까지 3개 영역 평균을 85.6%로 목표로 하고 있다.

PISA 본검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록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인지적 성취 결과와 교육맥락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추이와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특성을 다 각도로 파악한다. PISA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 외에 비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도 학생, 학교장,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의적 특성, 학교 실태 등을 파악하고 차후 국내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SDG4-교육2030 이행 사례 공유 및 실천 방안 세미나 >

- 목적:** ▪ SDG4-교육 2030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의 지속적 이행을 주요 국가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실천 방안 도출
- 내용:** ▪ 호주, 한국, 인도, 브라질, 일본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SDG4 목표 이행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웨비나 개최
- 세미나 주요 내용

| 시간 | 내용 | 발표/진행/참여자 |
|-------------|--|--|
| 13:30~14:00 | 등록 | |
| 14:00~14:10 | 개회 | 장경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외협력실장) |
| 14:10~14:30 | 기조강연 School Education Reform for SDG 4.0: Global Directions and Effort (SDG4 이행과 학교 개혁: 방향과 노력) | Phil Lambert PSM (Ph.D.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Sydney, Expert Advisor to the OECD's Education 2030 initiative, Phil Lambert Consulting Pty Ltd., 호주) |
| 14:30~14:45 | 국가 사례 1: 브라질 The Power of Coalitions: Bringing Multiple Stakeholders Together to Advance Education Policies in Brazil (연대의 힘: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연대 사례) | Camila Pereira (Director, Education at the Lemann Foundation, 브라질) |
| 14:45~14:50 | 질의 응답 | 참석자 |
| 14:50~15:05 | 국가 사례 2: 한국 To the World, for the World! Glocal Project in Jeollanamdo Province: Connected in One Pale Blue Dot (세계로, 세계를 위해: 전남에서 세계로 프로젝트) | 최경화 Kyunghwa Choi (Senior School Inspector, Head, Jeollanamdo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 한국) |
| 15:05~15:20 | 국가 사례 3: 인도 Schools as the Nerve Centres for SDGs (학교, SDG이행의 중심) | Swarnima Luthra (Principal, ASN Senior Secondary School, 인도) |
| 15:20~15:25 | 질의 응답 | 참석자 |
| 15:25~15:40 | 국가 사례 4: 호주 Developing Global Capabilities and Recognising Student Learning Growth and Attainment Both In and Beyond the Curriculum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의 글로벌역량 함양과 성장) | Liz Jackson (Supervisor, Global Capabilities, Research and Innovation Sydney Catholic Schools, 호주) |
| 15:40~15:55 | 국가 사례 5: 일본 Changes in Japanese Education: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Schools and the Private Sector (일본 교육의 변화: 민관 협력) | Shumpei Komura (Director, Benesse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일본) |
| 15:55~16:00 | 질의 응답 | 참석자 |
| 16:00 | 폐회 | 장경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성과 및 향후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및 일선 학교 국제협력 담당 교원,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협력 사례를 나누고 적용 방안을 논의함
- 세미나 녹화자료를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공유함 (<https://youtu.be/-hOpZKeqYz0>)
- 세미나 자료집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함
- 민관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학교와 사례 발표 기관과 연결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함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평가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준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행과 학업 성취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국제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즉 학업 성취 결과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모니터링의 지표로 삼는 것과 더불어 학습과 관련된 정성적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양질의 교육에는 많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평가 문항만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당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정 주기(3년)로 시행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정보 제공 주기가 다르며, 매년 실시되는 SDG4-교육2030 4.1영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점과 관련한 격차를 줄힐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남욱, 김미림, 이소라, 곽민호, 김지혜, 정태순(2021a).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연구자료 ORM 2021-5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구남욱, 김미림, 이소라, 곽민호, 김지혜, 정태순(2021b).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연구자료 ORM 2021-5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민희, 김완수, 김미림, 한정아, 손윤희, 정애경, 김예림, 정주영(2020a).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연구자료 ORM 2020-2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민희, 김완수, 김미림, 한정아, 손윤희, 정애경, 김예림, 정주영(2020b).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연구자료 ORM 2020-2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성민, 구남욱, 김현정, 이소연, 이인화(2019).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 RRE 2019-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http://www.index.go.kr>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8 OECD 학업성취도(PISA순위).

SDG4.2(영유아 보육·교육)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부문의 세부목표인 SDG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두 가지 글로벌 지표가 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아동의 (성별)비율(SDG4.2.1)이며, 둘째는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성별)비율(SDG4.2.2)이다. 2012년 단계적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모든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여 해당 연령 유아의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90% 내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째 글로벌지표(SDG4.2.2)는 이미 수 년 전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글로벌지표의 경우 2020년말 유니세프는 24-39개월 유아의 주요 발달지표를 측정하는 ECDI 2030(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를 개발했으나 국내 활용을 위한 지표 타당화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SDG4.2.1 이행 측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구도 아직 없다.

가. 영유아 국공립기관 이용률 확대

이상의 두 가지 글로벌 지표 이외에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국가지표인 K-SDG4.2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포함돼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공립기관에 비해 상당히 비중이 높은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을 개선해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인가정원을 늘려 국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2017년 24%에서 2020년 29.2%로 향상).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450개소씩, 2020년에는 550개소가 늘어났고 이용률도 2017년 13%에서 2020년 20.4%(0-2세 16.9%, 3-5세 24.8%)로 높아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022년까지 국공립기관 이용률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7-2020)

단위: 명, %

| 연도 | 유치원 (3-5세) | | | 어린이집 (0-5세) | | |
|------|------------|----------------|---------|-------------|----------------|-----------|
| | 계 | 국공립 | 사립 | 계 | 국공립 | 국공립 이외 |
| 2020 | 612,253 | 178,758(29.2%) | 433,495 | 1,239,338 | 252,212(20.4%) | 987,126 |
| 2019 | 633,520 | 177,140(28.0%) | 456,380 | 1,359,475 | 230,900(17.0%) | 1,128,575 |
| 2018 | 675,559 | 172,125(25.5%) | 503,434 | 1,409,680 | 199,335(14.1%) | 1,210,345 |
| 2017 | 693,830 | 172,099(24.8%) | 521,731 | 1,443,535 | 185,413(12.8%) | 1,258,122 |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2020)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7-2020), 연도별 보육통계

나.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부는 2013년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거의 6년 동안 20만원에 머물렀던 유아 1인당 지원단가를 2019년까지 22만원, 2020년 24만원, 2021년 26만원으로 2만원씩 연이어 인상함으로써 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 이는 당초 2019년 말까지 3년간 계획되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결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매년 약 2조)을 국고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3조 8,153억원에서 2020년 3조 9,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47억원이 늘어났다(교육부, 2020).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수업료 결손분 50%를 지원하는 한시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행 노력

SDG4.2의 첫 번째 글로벌 지표(SDG4.2.1)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이행과 관련한 대표적 노력으로 유아놀이중심의 3-5세 대상 누리과정 개정(2019. 7월 고시)과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유아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BS TV유치원 제작, 놀이꾸러미 보급, 유아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지원 노력이 있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유아의 원격수업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모의 시간 부족과 디지털 기기 및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문무경, 정호연, 2021). OECD(2021)는 무엇보다 유아교원 대상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한 유치원-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교사와 부모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 마련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테크놀로지 사용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매커니즘 개선 등을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가. 유관기관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SDG4.2 이행 모니터링

육아정책연구소는 SDG4-교육2030협의체 SDG4.2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2 국내 이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와 함께 공동세션을 개최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은혜 계명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호 박사는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K-SDG4의 7개 세부목표의 전반적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개관했으며, 문무경 박사는 SDG4.2 영유아부문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 이행을 위한 국제동향(유니세프 아동발달측정도구, 유네스코 교육의미래보고서 등)을 소개하고, 이에 비추어 국내 영유아부문 모니터링의 이슈와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를 대표해 나온 김은혜 교수는 유아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과의 연계 등 현장 실천을 위한 고려 사항들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SDG4.2뿐만 아니라 SDG4와 여타 목표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아직까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생소한 SDG4.2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향후 유관학회의 학술대회에서 SDG4.2 세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분과세션을 마련키로 했다.

나. 기후환경 웨비나 시리즈 기획 및 추진

기후환경변화가 영유아와 가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KICCE 기후환경 웨비나’를 개최했다. 4명의 패널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제1회 KICCE 기후웨비나는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영유아의 삶을 조망하고 영유아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등 주요관계집단 간의 실천력 강화와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2022년에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SDG4.2 워킹그룹 기관 등 여러 단체가 연합해 기후환경 웨비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워킹그룹 기관들이 각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돌아가며 웨비나 시리즈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기후환경 마련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중심 기후변화 전략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가. SDG 4.2 영유아부문 이행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과 실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도하에 2018년부터 ‘SDG4-교육2030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SDG4.2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K-SDG 지표에 대한 보완 및 연도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급격한 환경·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 2021). 사회 변화의 주기는 갈수록 단축되고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지면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감염병과 긴급재난 등의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주어진 사회환경과 여건에 신속히 적응토록 할 SDG4.2 이행 목표를 세우고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여 K-SDG4.2를 점검하고 있으나, 총괄 목표만 제시돼 있어 그 중간 단계가 다소 막연하며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단계적 이행 목표를 설정하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10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계획이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포함 및 연계되도록 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SDGs 자체가 강력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부문에서는 다른 세부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기존 K-SDG 지표 개념 정의 및 산출 방법과 도구 고안

현재 SDG4.2.1에서 ‘영유아의 사회심리정서적 안녕(well-being)’에 대한 국내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 또한 이미 목표 수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도구가 없고 관련된 향후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개발된 유니세프의 영유아발달지표(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ECDI)나 OECD의 국제영유아학습·웰빙연구(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 IELS)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를 벤치마킹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체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구를 통한 실증적인 데이터 없이 SDG 4.2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소득 불평등과 지역 격차,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영유아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DG4.2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가정 내 돌봄 공백 ▲코로나19로 인한 유아·부모·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취약계층 영유아의 교육 격차 ▲팬데믹 시기 아동학대 모니터링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놀이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 등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유아부문 국내 이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누리과정 재정 지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2020).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 문무경, 정호연(2021). OECD국가 사례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경(2021).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2020). 연도별 보육통계.
- OECD(2020).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IELS).
- OECD(2021). Using digital technologies for early education during COVID-19.
- UNICEF(2020). ECDI 2030.

SDG4.3(고등교육)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정희 정책연구팀장, 황정원 선임연구원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가. SDG4.3 고등교육분야 세부목표 차원의 이행현황

고등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4.3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관점에서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 | |
|----------------|---|
| 세부목표 SDG4.3 |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고른기회특별전형’(예: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농어촌학생, 만학도, 서해 5도 학생, 장애인 등 대상자, 지역인재,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모든 대학은 고른기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47,606명, 2022학년도 53,546명, 2023학년도 55,279명으로 매년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 접근 기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0 통계연보(한국장학재단, 2021)를 살펴보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0년 241,894백만 원에서 2020년 3,528,375백만 원으로 액수로는 약 15배, 건수로는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 역시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 등 유연한 제도를 통해 원하는 경우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평생교육백서를 살펴보면, 전체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30-39세 독학사 학위취득자의 비중이 35.3%로 가장 높으며,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2020년 전년대비 약 7.2%가 증가한 약 5만 9천명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SDG4.3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 및 K-SDG 4.3 지표별 이행점검

유엔은 SDG4의 고등교육분야 세부목표인 SDG4.3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세부 지표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SDG4.3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

| 구분 | SDG4.3 지표 |
|--------|---|
| SDG4.3 |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 | 4.3.2 고등교육 총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및 성별 비율 |
| | 4.3.3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비율 및 성별비율(15~24세)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12, 34).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이와 관련해 지속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K-SDGs를 개발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SDG4-교육2030 협의체는 교육 분야인 K-SDG4의 지표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K-SDG 지표는 K-SDG4.3과 교육여건에 대한 공통지표인 K-SDG4.9 지표가 해당된다([표2]참조). K-SDG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는 ①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②고등교육 이수율, ③학생 1인당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이며, 교육단계별 공통지표로 ④고등교육(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이 있다.

[표 2] K-SDG 고등교육분야 세부지표

| 구분 | 지표명 | 목표 |
|----------|-----------------------------------|----------------------------------|
| K-SDG4.3 |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2030년: 지속 증가 2040년: 지속 증가 |
| | • 고등교육 이수율 | 2030년: 49% 유지 2040년: 49% 유지 |
| | • 학생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2030년: 지속 증가 2040년: 지속 증가 |
| K-SDG4.9 | • 고등교육(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2030년: OECD 평균 2040년: OECD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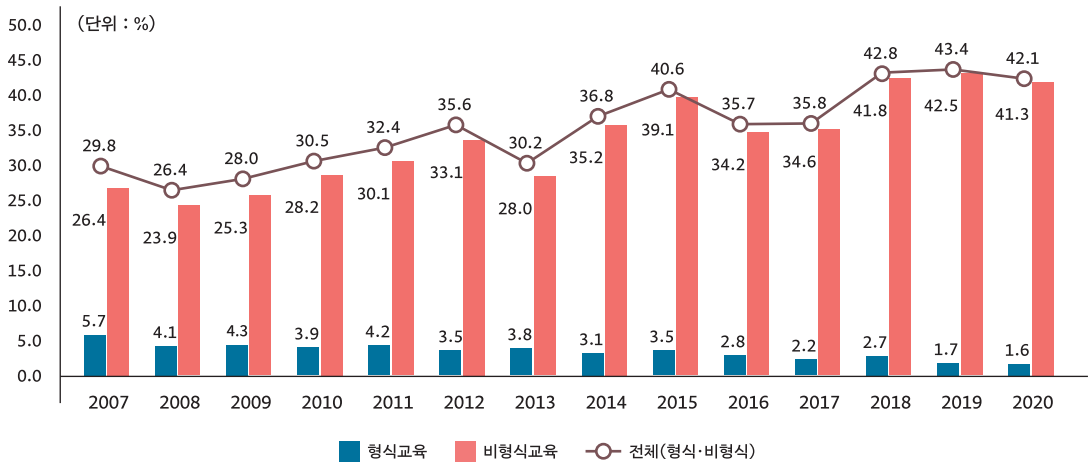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2021a: 48). 2021~204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고등교육 K-SDG4.3의 첫 번째 지표인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과 관련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학위과정을 포함한 정규 제도교육에 대한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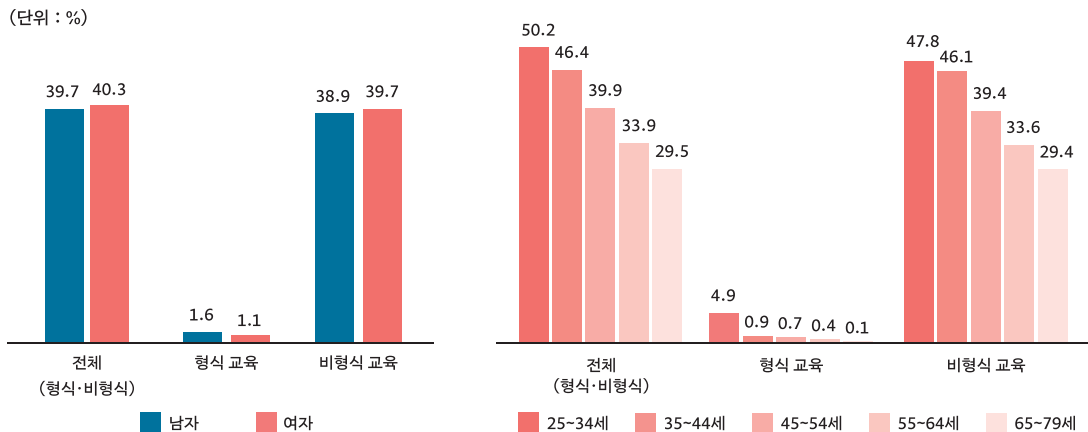
교육 참여율' 및 '정규교육 이외에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형식교육 참여율'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25-64세 한국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41.3%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 추이는 2007년 26.4%, 2011년 30.1%을 거쳐 2019년 42.5%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성인의 성별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남성이 38.9%, 여성이 39.7%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5-34세가 47.8%로 가장 높았다. 반면 25-64세 성인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020년 1.6%로 2007년 5.7%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인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그림 2] 한국 성인의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32).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K-SDG4.3의 두 번째 지표인 ‘고등교육 이수율’과 관련해 우리나라 성인 전체(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0년 50.7%로 전년대비 0.7%p 상승했고 OECD 평균 40.3% 보다 높다. 2020년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69.8%)은 OECD(2021)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장년층(55세-64세)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율(25.1%)은 OECD평균인 28.8%보다 낮아 세대 간 격차를 보여준다([표 3] 참조). 장년층(5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까지는 OECD 평균과 7-8%p 차이가 났으나 2020년에는 3.7%로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향후에도 장년층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2000년~2020년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 구분 | 25세~64세(성인전체) | | 25세~34세(청년층) | | 55세~64세(장년층) | |
|-------|---------------|---------|--------------|---------|--------------|---------|
| | 한국 | OECD 평균 | 한국 | OECD 평균 | 한국 | OECD 평균 |
| 2020년 | 50.7 | 40.3 | 69.8 | 45.5 | 25.1 | 28.8 |
| 2019년 | 50.0 | 39.6 | 69.8 | 45.0 | 24.4 | 28.3 |
| 2015년 | 45.5 | 34.5 | 69.0 | 41.8 | 18.3 | 25.6 |
| 2010년 | 39.7 | 30.3 | 65.0 | 37.8 | 12.8 | 22.9 |
| 2005년 | 31.6 | 26.0 | 51.0 | 32.2 | 10.0 | 18.6 |
| 2000년 | 24.2 | 22.9 | 39.5 | 27.7 | 8.9 | 15.6 |

주 1) 조사대상: 25~64세, 연도는 조사기준년도임.

2)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3)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OECD(각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K-SDG4.3의 세번째 지표인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2012년부터 전체 평균 장학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장학금 지원 규모 증가폭은 2010년 약 4천 1백억 원(약 26만 건)에서 2012년 약 1조 9천억 원(약 260만 건)으로 해당 기간 내 약 4.6배에 달했다.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되다가 2018년(약 4조 원, 311만 건)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약 3조 9천 7백억 원, 323만 건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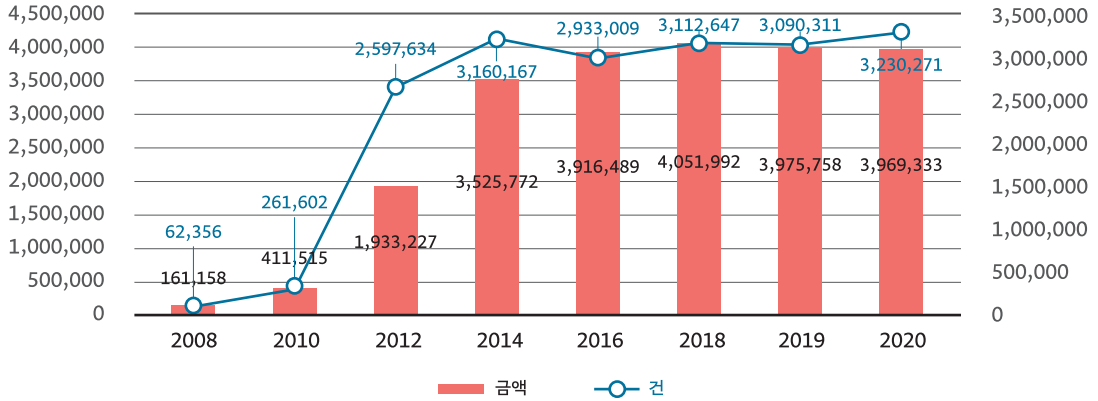
[표 4] 국가장학금 규모 및 건수 추이(2008~2020년)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19 | 2020 |
|----|---------|---------|-----------|-----------|-----------|-----------|-----------|-----------|
| 금액 | 161,158 | 411,515 | 1,933,227 | 3,525,772 | 3,916,489 | 4,051,992 | 3,975,758 | 3,969,333 |
| 건 | 62,356 | 261,602 | 2,597,634 | 3,160,167 | 2,933,009 | 3,112,647 | 3,090,311 | 3,230,271 |

출처: 한국장학재단(2021:18-19). 2020 통계연보.

[그림 3] 연도별 국가장학금(전체) 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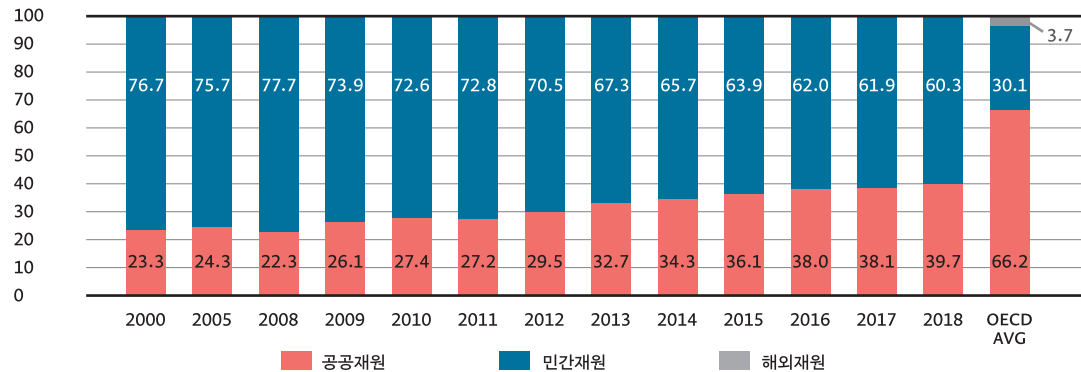


출처: 한국장학재단(2021: 18-19). 2020 통계연보.

마지막으로, 교육여건지표인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기존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 부담 비율’이 변경된 것이다. 여기서 고등교육단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2000년 23.3%에서 2008년 22.3%로 감소했다. 공공재원 비중은 이후 2010년 27.4%, 2012년 29.5%, 2014년 34.3%, 2017년 38.1%, 2018년 39.7%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2018).

따라서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과 전체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고등교육재정 수준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고등교육예산의 규모대비 약 1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표 5] 참조).

[그림 4] 고등교육단계의 공공 및 민간 자원 비율



출처: OECD(각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주: 2010년~2013년 자료는 OECD에 재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산출 수치로 발간물 수록 수치와 다름.

* 2014년부터 한국의 교육비 산출 기준 일부 변경

[표 5] 한국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과 재원규모/추가 확보 규모

(단위: 십억 원, %)

| 구분 | 금액 |
|--------------------------------------|-----------|
| 현재(2020년) GDP 규모 | 1,933,152 |
| GDP의 1.1%(a) | 21,265 |
| 2021년 고등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b) | 11,327 |
| GDP 대비 고등교육 분야 재정투자 비율(현재) | 0.59 |
|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보에 필요한 추가재원 규모(a-b) | 9,938 |

출처: e-나라지표(202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기획재정부(2021: 157).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미래 고등교육의 가치와 역할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교육기회 증진을 목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향후 대교협은 ‘SDG4 차원에서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성과 양질의 교육보장,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표 6]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고등교육전문가 토론회 요약

| 구분 | 대교협-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주요 내용 요약 |
|--------|---|
| 주제발표1 | 「고등교육 미래를 위한 준비 모색」 장덕호 교수(상명대) - 고등교육 포용성 측면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성,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가치 및 역할, 구조적 이슈 등을 논의하고 대학의 미래가 곧 그 사회가 가진 정신의 미래라고 제언함 |
| 지정토론 1 | - 최돈민 교수(상지대)는 SDG4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으로 성인의 계속교육 지원 정책의 확대·개편을 제안함 - 임철일 교수(서울대)는 대학체제의 유연성, 대학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대학생 지원 전담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 추가가 아닌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함 - 박광국 교수(가톨릭대)는 교육철학적 관점(상상, 해체, 탈영역화)에서 법·제도적 관점(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형태 및 조직 문화적 관점으로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주제발표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국제화의 전략」 홍준현 교수(중앙대) - 대학 국제화를 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국제화 추진을 교육과 연계하여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온라인 국제화 프로그램인 COIL(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과 프랑스의 글로벌 교육과정 사례를 공유함 |

지정토론2

- 고장완 교수(성균관대)는 국제화에 대한 시각 전환을 위해 ‘대학의 국제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편, 외국의 좋은 사례가 국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병식 교수(연세대)는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과 함께 외국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한 고민과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유성상 교수(서울대)는 코로나 시대에 대학교육 국제화의 기준을 학생이동이나 재원이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고등교육국제화가 글로벌 역량(세계시민성 함양)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함

교육 2030

제20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SDG4-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 세미나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변화와 전망

일시 | 2021. 9. 24(금), 14:00~15:30
 회의링크 | <https://kcue.my.webex.com/kcue.my-ko/j.php?MTID=m853ce010ebcf7a6b482996169cbbedsa>

사회 | 김장현(대학교협 정책연구담당)

주제 1
 | 발표 | 고등교육 미래를 위한 준비 모색 (발표자: 장덕호(성명대 교수))
 | 토론 | 최문민(상지대 교수), 임철업(서울대 교수), 박광국(기림학대 교수)

좌장 | 백정현(대학교협 고등교육연구부장)

주제 2
 |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국제화의 전략 (발표자: 홍준현(중앙대 교수))
 | 토론 | 고장완(성균관대 교수), 이병식(연세대 교수), 유성상(서울대 교수)

사회 | 황정원(대학교협 선임연구원)

질의응답

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ICEF Korea Committee for UNESCO

3. “SDGs 이행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유네스코(2018)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 달성을 위해 모든 학습자를 포용하면서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인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과정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추이,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비율 등을 통해 국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SDGs 목표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접근기회의 형평성, 비대면 고등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발생 정도, 대학 간, 학생 간 격차 최소화 지원 방안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급감, 지역 간 격차, 대학서열화에 의한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간, 학교 간 학력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새로운 수업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보편화된 ‘온택트’ 고등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를 확대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고등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디지털 시민의식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와 다자협력을 뒷받침할 공공재로서의 교육(세계교육회의, 2020)을 더욱 강화하고, 생애주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교생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일반인 및 성인학습자를 통합하는 개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SDG4의 국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K-SDG 지표가 국내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비학위과정 참여율의 경우 양질의 평생 고등교육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학위과정의 참여율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 이수율 관련, 한국 맥락에서 단순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등교육 형평성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고등교육의 격차 및 양극화 등의 문제를 반영하는 지표와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대학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내 모든 주체(학생, 교수, 직원 등)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대학 환경이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적 토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동경대가 총장실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부서를 마련해 대학의 모든 부속 기구와 활동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은 좋은 사례다.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논의의 장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평생교육백서」
- 관계부처협동(2021a)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1부」
- 관계부처협동(2021b)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2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기획재정부(각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2020) 「2020 세계교육회의 선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제4회 SDG4-교육2030 포럼 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4.29)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첨부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변화와 전망, 제20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 한국장학재단(2021) 「2020 통계연보」
-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역, 「OECD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http://ncsd.go.kr/ksdgs?content=3>(2021.10.11.자료인출/지속가능발전 포털)
- <http://www.acdemyinfo.go.kr>(2021.10.11.자료인출/ 대학알리미)
- <https://www.index.go.kr/>(2021.10.11.자료인출/e-나라지표)

<SDG4.3 고등교육분야 자문진>

| 구분 | 자문위원 |
|----|---|
| 1 | SDG-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 김지현(서울대학교), 박광국(가톨릭대학교), 임철일(서울대학교), 장덕호(상명대학교), 채재은(가천대학교), 최돈민(상지대학교) |
| 2 | 자문그룹(I) 고장완(성균관대학교), 길혜지(충북대학교), 유성상(서울대학교), 이병식(연세대학교) |
| 3 | 자문그룹(II) 김이경(중앙대학교), 박환보(충남대학교), 한용진(고려대학교) |

SDG4.4(직무스킬)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기락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장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가. SDG4.4 직무스킬 이행 현황 및 주요 쟁점

SDG4-교육2030의 세부목표 중 하나인 SDG4.4는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 세부목표는 직무스킬(skills)로 정의되는데, 일자리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직업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직무스킬(SDG4.4) 관련 지표는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역량 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황별, 교육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이수율 등의 세 가지다. 그러나 앞의 두 지표에 해당하는 국내 통계는 없으며, 마지막 지표는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등이 중점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 지표들은 SDG4.3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세부 목표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15-24세)’ 지표와 일부 중복된다. 국내 문헌에서는 SDG4.3의 지표에 대한 국내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만, SDG4의 지표 중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지표만 데이터가 일부 활용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관계부처합동, 2021).

[표 1] SDG4.4 세부목표와 지표

| SDG4.4 세부목표 | | |
|--|---|---------------|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 |
| 구분 | SDG4.4 지표 | K-SDG4.4 세부지표 |
| 스킬 |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역량 유형별) 4.4.1 | |
| |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 |
| |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K-SDGs 중점 지표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37)

나. 이행 현황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0년말 기준으로 SDG의 전체 136개 지표 중에서 한국 데이터의 이용가능 비율은 58.9%인데 반해, SDG4의 전체 12개 지표 중에서 한국 데이터의 가용률은 50.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특히 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는 데이터나 지표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별/지역/소득수준 등에 따른 분리 통계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지표의 경우 평생학습 참여율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그림 1).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활용해 전체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수(재직자 및 실업자, 공공훈련 포함)로 산출하고 있으나, 지표의 적합성과 안정성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K-SDGs에서는 세부목표 4.4와 관련해 약간의 설명이 추가되었다. 기존 문구에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평생학습 또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보고서에서도 해당 세부목표의 추진 배경으로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성인 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직업능력 향상 요구를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적시하고 있다. 정책과제로는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체계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21).

[표 2] K-SDG4.4 직무스킬 지표 현황과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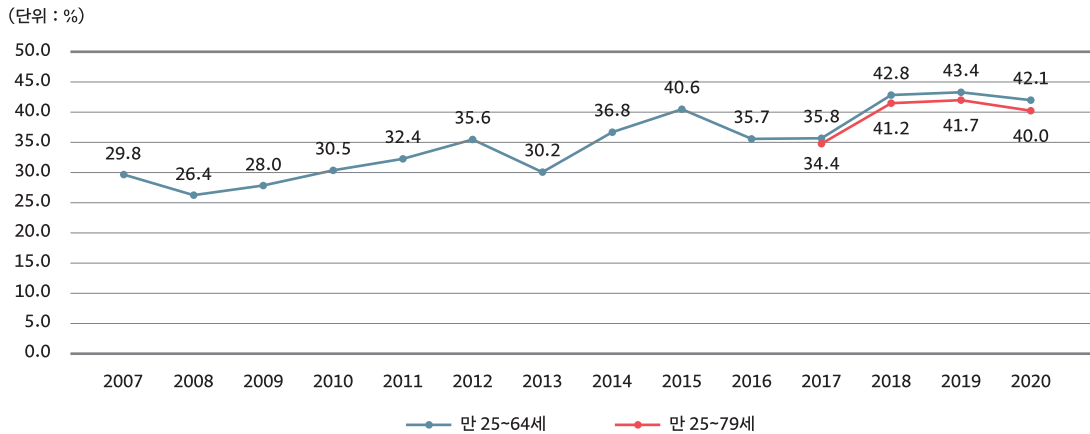
| 구분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K-SDGs 세부목표 4.4 | (1) 평생학습 참여율* | 2019: 43.4% | 2030: 50.0% 2040: 지속 확대 |
| |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2017: 16.1% | 2030: 40.0% 2040: 지속 확대 |
| |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통계 구축 필요 | 통계 구축 후 확정 |

주: *25~64세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 자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69)

[표 2]에 나와있는 대로 2019년 현재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50.0%로 높이고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에서 구직자 수 대비 직업훈련 참여

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2017년 기준 16.1%이며 2030년까지 40.0%,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통계 구축 후 목표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림 1]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2007~2020년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의 가능성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도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을 비롯하여 디지털 분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Digital Training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위해 2021년 사업 규모를 6만 명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에 대한 지원도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총 574억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2021.6.9.)에 따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간간협력단체가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훈련 기관이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여 50% 이상 채용을 약정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기업, 대학 및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산업계 주도형 ▲삼성이나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 기업이 자체 훈련모델을 활용하여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될 예정이다(류기락 외, 2021).

K-Digital Training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입직·연공급 및 내부승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가능하게 했던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을 취한 훈련으로 간주된다.

K-Digital Training은 기업 맞춤형의 고급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양질의 훈련과정과 과감한 훈련비 지원 등으로 성과가 매우 좋으며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바탕을 둔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모델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이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직무스킬과 관련하여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긴급한 과제다. 현재 지표 부재로 인해 해당 지표에 대한 이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래 핵심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려가 크다. 가장 최근의 국제조사(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 ICILS,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ICT 활용 능력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흥미 및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교사의 ICT 활용 효능감은 높으며, 학교의 컴퓨터 자원 보유 및 활용 현황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39).

디지털 스킬 혹은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혁신과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이 학령기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이후 생애 기회 및 소득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SDG4 이행 모니터링 및 국가별 이행 계획 수립 차원에서도 관련 지표에 관한 안정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국가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는 직무스킬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및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스킬은 젠더 이슈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SDG4(양질의 교육)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라는 SDG8(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직무스킬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제다.

SDGs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체제, 관찮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스킬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노동시장 및 일자리에서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노동시장-은퇴 시기의 각 단계별로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직무스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교육과도 관련되어 있으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이나 평생학습을 통해 개발되고 활용되는 직무스킬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를 지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끄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 분배와 집단 및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세력 간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직무스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SDG의 이행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직업기술교육훈련 중기 투자 전략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사람과 경제, 사회의 세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직무스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SDGs가 근대 자본주의의 생산중심주의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신화로부터 벗어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과 경제에 단순히 적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구조개혁적 인적자본투자 전략 관점에서 SDGs에 접근해야 한다. 요컨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세력 간 연대를 견인하며, 성인지적이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세대 간의 통합을 견인하는 양질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SDGs 의제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과 상생협력을 위한 SDG 이행의 핵심 비전이라 할 수 있다(Andersen, 2008: 107)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 류기락·박종성·나동만·김봄이·전승환 (2021).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 The HRD Review, 제24권 4호. pp: 52-77.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통계개발원(2019).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 현황.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Anderson, D., 2008. Productivism,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ecological question. *Vocations Learn.* 1 (1), 105-129.

SDG4.5(교육형평성) 이행현황 점검 및 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1. 세부목표와 지표

SDG4.5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형평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글로벌 지표는 ‘①모든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글로벌 지표)’이다.

K-SDGs에서도 형평성과 관련한 중점 모니터링 지표로 글로벌 지표와 동일하게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산출로 정했다. 그러나 국내 맥락에서 SDG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 성별 격차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아동(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장애인 등 국내 다양한 취약집단을 고려한 이행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 내 성평등 이슈와 함께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인 학생의 집단별 현황과 현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며 SDG4.5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본다.

2. 2021년 SDG4.5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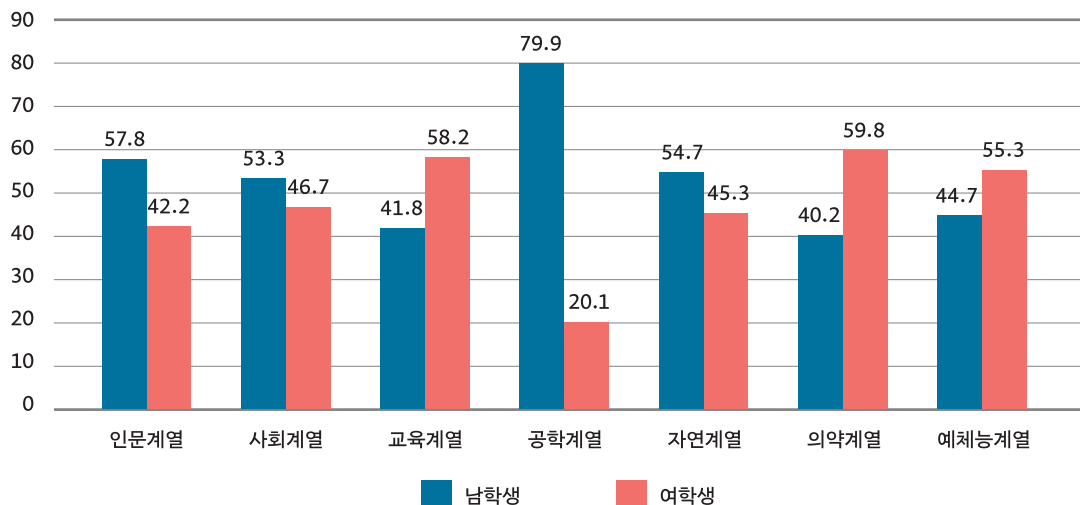
가. 성평등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모두 취학률에서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 2020년 기준 초등학교의 성별 취학률은 남학생 98.4% 및 여학생 98.5%로 여학생이 0.1%p 높으며, 중학교는 남학생 95.8% 및 여학생 95.5%, 고등학교는 남학생 91.6% 및 여학생 91.0%로 남학생이 조금 높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학업중단률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기준 성별 학업중단률은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학업중단률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¹ 고등교육으로의 성별 진학률은 2020년 기준 남학생 69.3% 및 여학생 76.1%로 여학생이 더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1. 초등학교 학업중단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0.7%이며, 중학교 학업중단률은 남학생 0.7%, 여학생 0.8%이며,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은 남학생 1.6%, 여학생 1.8%이다.

이와 같이 교육 접근성에서의 성별 격차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진로선택 및 노동시장에서의 분리현상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림 1]의 2020년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학계열 내 여학생 비율은 20.1%에 불과하다. 90% 이상의 미래 직업군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출을 독려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UN, 2019).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전공분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업분리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전공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여성과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3년 제정)」 및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대학 내 계열별 성별비율(2020년 기준)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재구성.

교육 내 성평등 이슈로 질적인 평등, 즉 인식과 문화에서의 성평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스쿨 미투(학교 내 성폭력 고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17.2.24.),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간(교육부 보도자료, 2019.2.28.)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예비교사들이 성인지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도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 성희롱, 성차별, 젠더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내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적 평등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질적 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 다문화 학생

국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2020년 4.0%로 3.6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각각 2012년 대비 각각 4.0배, 4.5배 증가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기준 국내 다문화 학생수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약 2.6%를 차지한다(교육부, 2021c).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²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98.1%, 중학교 92.8%, 고등학교 87.9%, 고등교육기관 49.6%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중학교 5.1%p, 고등학교 4.5%p, 대학교 18.0%p) 전체 국민과의 취학률 격차가 커진다(최윤정 외, 2019).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기준 0.95%로 전년도(1.03%) 대비 개선되어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0.28%)은 전체 평균(0.51%)보다 낮은 수준이다(교육부, 2021c).

한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취업률은 18.6%로 청소년 일반(26.2%)에 비해 낮은 편이다(최윤정 외, 2019).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실제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7.8%(최윤정 외, 2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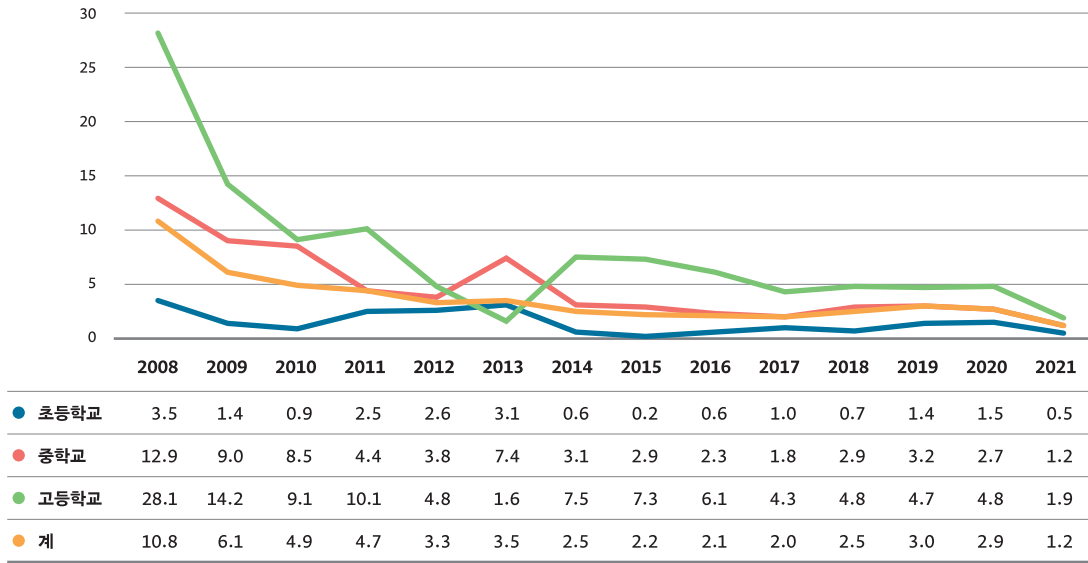
다. 탈북학생

탈북청소년은 국내의 특수한 맥락과 수요를 반영하는 취약집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규모는 2005년 421명에서 2021년 2,28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에 654명, 중학교에 740명, 고등학교에 739명, 기타학교에 154명의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21년 1.2%로 2008년 10.8%에서 크게 줄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율(1.2%)이 급격하게 낮아졌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맞춤형 멘토링 등 지속적인 학교현장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탈북학생이 각기 다른 성장배경, 교육경험 등으로 여전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 탈북 학생의 23.7%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학습·학업지원’을 꼽았다(남북하나재단, 2021). 우리나라는 탈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진로진학 및 학습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학습·학업지원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내실화가 필요하다.

2. 다문화가구 자녀의 취학률은 3년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집계되며, 2021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림 2]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추이(2008-2021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주)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수) / (전년 재학생 총 수) × 100

- (20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 (20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라. 장애인 학생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약 9만 8천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다(교육부, 2021a). 이는 전체 학생의 약 1.6%에 해당한다. 현재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장애영역별·학교과정별 취학인구에 대한 통계는 매년 집계되고 있으나,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연령 재적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취학률에 대한 통계치는 없다. 장애학생의 학업중단율도 별도로 조사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고등교육단계로의 진학과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2021년 기준 장애학생의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은 40.3%이며, 이는 비장애인의 진학률(2020년 기준 7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교육부, 2021a;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그마저도 진학자 중 약 65%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문기술교육과정인 전공과로 진학하고 있다(교육부, 2021a). 장애학생의 2021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21.8%고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44.7%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a). 2019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통계청·보건복지부, 2020).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6.5%가 취학유예 및 유예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진다(교육부, 2020).³ 가장 큰 취학 유예 원인은 건강 악화나 의료적 치료를 위한 것(약 83%)으로 나타났으나, 인근에 적합한 특수교육기관이 없거나(7.0%), 교육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다(3.5%)는 것도 장애학생의 학습기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20).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21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특수학교(급) 확충,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21b).

3. SDGs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SDGs가 추구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인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탈북민,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학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각 집단별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학률과 학업중단율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취약집단의 학업중단율은 여전히 전체 학생보다 높으며,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은 더욱 제한되고 성취격차가 심해졌다. 또한 청소년들의 젠더갈등 및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교육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 세밀한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통계 수집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취학률, 학업중단율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분리통계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DG4.5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내 분리통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탈북학생의 취학률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률, 학업중단율 등에 대한 통계가 없다. 따라서 취약집단별 취학적령 인구와 재적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아가 SDG4 내 모든 교육지표에서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나. 교차성을 고려한 교육 형평성 제고

보다 적극적인 SDG4.5 달성을 위해서는 취약집단의 교차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취약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의 다양한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취약

3.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23.6%, 중학교 30.9%, 고등학교 35.6%에서 취학유예 및 유예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집단의 사각지대 혹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한 집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학생, 다문화 장애인 학생, 여성 탈북학생 등 여러 취약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교육·직업훈련으로부터 더욱 소외될 수 있으며, 특수한 교육적 요구와 애로사항도 지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고려가 단순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관련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추가적인 지원,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SDG4-교육 2030 협의체’는 SDG4.5와 관련한 긴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협의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SDG4.5 이행에 있어 취약계층의 교차성 이슈는 중요한 과제를 인지해야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교육의 실현을 위해 SDG4-교육 2030 협의체 및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협력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7.2.24.) “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19.2.28.)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 교육부(2021a). 2021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교육부(2021b). 202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1c).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남북하나재단(2021).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 통계청·보건복지부(202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통계청·보건복지부.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UN(2019). More women and girls needed in the sciences to solve worlds’ biggest challenges. UN News, 11 February 2019.

SDG4.6(성인 문해·수리력)

세부목표별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시대 생활문해의 확장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방향과 과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헌주 대외협력실장

1. 기본현황

가. 문해 능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현황

최근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문해능력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다. 동 조사는 다양화되고 확대된 문해 개념을 반영해 우리나라 성인의 기초 문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동시에, 3년 단위의 정기적 조사를 통해 성인문해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문해교육정책의 토대가 되는 실증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문해능력에서 초등 또는 중학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1-수준3’에 해당하는 성인은 20.2%, 약 890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 1’의 비문해인구는 전체 성인의 4.5%(약 200만 명)로 추정된다.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및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는 4.2%,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공공·경제생활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 3’은 11.4%로 조사됐다.¹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 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레벨 2-3단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성인 응답자의 비중은 30.4%로 OECD 조사대상국 중

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위에 자리한다.²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29.7%)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상위권 국가로 평가되는 뉴질랜드(44.2%), 스웨덴(44.2%), 일본(34.6%)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성인 중 컴퓨터 활용 경험이 전혀 없거나 ICT 활용역량이 부족한 디지털 취약계층 비중은 24.6%로 OECD 평균(1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활용 경험이 없는 성인의 비율도 15.5%로 OECD 평균(11.7%)보다 높았다. 더 나아가 ICT 활용역량이 부족한 성인의 비율 역시 9.1%로 OECD 평균(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정책 현황

교육부가 총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이 주관·실행하는 우리나라 성인 대상 생활문해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실행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정책은 학습자에 대한 지원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재개발 및 제공, 교육기관 지원 및 교·강사 역량강화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지원을 통해 정보문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프로그램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2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8개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 문해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 사업: 국가문해교육센터가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민간사업자인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정보문해교육 교과서 발간(2017년, 2020년) 및 교수·학습자료, 보수교육교재 개발을 지원(2017년)하고 있다.
- 문해교육 담당 교·강사 역량 강화 지원: 이 사업은 정보화교육을 위한 문해교사·관계자 대상 보수교육 교재 개발(2017년)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교·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2018년~)으로 나뉜다. 국가문해교육센터는 2019년부터 초·중·고학 문해교원 대상 연수과정의 공통영역으로 ‘생활문해교육의 이해: 디지털 문해교육의 이해’를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문해교육 기반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2021년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8개 지자체 및 426개 문해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계·활용해

2. OECD(2019), 국제성인역량조사 3차 조사결과('14년~'19년, 39개국)를 바탕으로 성인의 핵심정보처리역량 분석(OECD, Skills Matter: Additional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Skills Studie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 Digital Inclusion Report 3호, 9쪽에 인용.

3. 국가문해교육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디지털 문해교육 현황 및 향후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SDGs4. 워킹그룹’ 제2차 협의회('21.8.19) 발표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민 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집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의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동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지역의 광범위한 기관 네트워크와 연계·활용해 그 수혜층을 더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민 대상 공중파 교육방송 제작 및 방영 지원: 일상에서 마주하는 디지털 환경적응을 위해 정보문해를 결합한 생활영어 교육방송인 ‘EBS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 영어하기 좋은 날 3’의 제작과 방영을 지원하고 있다.
- 문해 관련 연구 및 조사 지원: 2018년부터 정보문해교육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스마트 기기 및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평생학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보문해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해 시범조사를 실시해 왔다.

2. 해외 사례

가. 미국 사례

미국은 교과목 전반에 비판적 사고력 및 멀티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안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우선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교육, 인터넷 안전 등 독립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주 정부의 교육과정에 걸친 공통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주지사협의회(NGA) 및 주 교육감위원회(CCSSO)가 공통핵심기준(CCSS), 즉 모든 주에 적용·권장되는 학업성취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어, 사회, 과학 전 분야에 걸쳐 21세기 핵심역량으로서 정보의 수집, 생산 및 평가 등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영어과목에도 리터러시 관련 기준이 도입돼 읽기 영역에 ‘정보 이해’를 세부 기준으로 편성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제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전반에 걸쳐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디지털배움터는 총괄거점센터, 거점센터, 일반 교육장으로 구분돼 설치·운영되며,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 생활 및 심화의 세 단계로 구분·운영된다. 한편, 사업 수행기관은 센터별로 강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검색일 : 2021.12.2.).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앞의 글, 13~14쪽.

나. 싱가포르 사례

싱가포르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와 통신정보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등 국가기관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우선 교육부는 시민 리터러시, 글로벌 의식 및 다문화 기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및 정보기술을 21세기 필요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에서 ICT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학년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인성 및 시민성 교육 개편을 통해 사이버 웰니스(cyber wellness)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대학교육 과정에 포함했으며, 모든 중학생에게 디지털 교육기기 구매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는 업계, 시민사회, 정부 등과 협력해 미디어 활용 능력과 사이버 웰니스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관련 역기능 및 대상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각종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사이버(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일체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해결을 모두 달성하는 인간 중심 사회(Society 5.0)를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일본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디지털청’을 2021년 9월 신설하여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공통기능 정비, 국민(이용자) 관점에서의 UI·UX 개선 및 서비스 실현, 국가 등의 정보시스템 총괄과 관리, 디지털 인재육성 및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총무성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우선, 총무성 주도로 2019년 12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기본방침의 핵심 내용은 디지털 활용을 통한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의 실현, 인간 친화적인 디지털화,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디지털 활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전국의 관련 대리점네트워크를 디지털 교육 거점(전국 전개형)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공단체와 연계해 공민관 등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 지원(지역 연계형)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성은 2022년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없는 시정촌(817개)에 강사를 파견하는 것을 포함, 매년 약 5,000개소에서 약 30만 회의 강습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2021년~20215년) 총 1,000만명 학습자 참가를 목표로 하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앞의 글, 18~19쪽.

7. 박지숙, “일본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현황과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SDGs4. 워킹그룹’ 제3차 협의회(‘21.10.8) 발표자료.

고 있다. 아울러 (재)일본데이터통신협회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 인력(디지털활용지원원) 양성을 위한 관련 연수 의무화 등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적 운동으로서 디지털 활용 지원을 위해 타 부처, 지방공공단체, 교육기관, NPO 법인 등과 연계한 ‘국민운동’으로 청년세대의 고령자 디지털 활용 교육, 고령자를 위한 상담의 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활용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의 날’(2021년은 10월 10일, 2022년부터 10월 11일)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내 우수사례]

“늦깎이 학생들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자서전과 영상자서전 내 인생의 봄날 제작!”

■ 특성화 사업명

나 이제 가노라, 더 높은 세상으로!

서울 노원구청, (사)마들같이운영 노원여성교육센터

■ 주요 내용

주요 대상 비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① 동영상 ‘인생추’를 함께 시청하고 인생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② 비문해 학습자들과 학습자들의 사진을 매개로 살아 온 이야기 구술하고, 그 내용을 프로젝트 활동가들이 기록하고, ③ 글쓰기 수업 후 학습자 자신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 전하는 편지쓰기, ④ 구술내용과 사진 편지글을 바탕으로 자서전 내 인생의 봄날 제작, ⑤ 자서전을 바탕으로 각 학습자당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함.

■ 사업 성과

비문해 학습자들이 살아 온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의 삶을 치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북과 인생다큐팀과 함께 함으로써 문해교육을 알리고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식들에게 편지를 처음 써 보면서 그간 말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 고마운 마음 등을 전하는 기회가 됨. 특히 먼저 간 남편 자식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정확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디지털시대에 맞게 자서전을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훗날 가시는 길에 영정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하였으며, 인터뷰어로 참여한 프로젝트 활동가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살아온 과정을 정리해보는 자서전 활동이 문해학습자들에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영상으로 제작된 자서전은 앞으로 자서전 발간 활동의 다양한 시도 가능성도 제시하였음.

3. 문해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과 과제⁸⁾

문해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과 관련 과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생활문해의 확장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일시적인 교란(disruption)이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수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의 힘을 활용해 더 나은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학습생태계의 구축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전제 위에서 문해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해학습 관련 데이터를 생성·축적하고 그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우선 문해능력 조사통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문해능력의 영역별·수준별 실태조사를 한 뒤 문해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유형별 세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문해학습자의 학습 이력과 경로를 추적한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다. 문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진입과 탈락, 재진입 등에 관한 학습이력과 경로 전반에 대한 추적과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경험 중심의 문해학습 결과의 평가인증체제 도입도 필요하다. 문해학습자의 개인별 학습활동 이력 축적을 기반으로 한 참여 활동과 성과 중심의 경험 중심 평가인증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해학습 콘텐츠의 확장과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 문해학습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비대면 수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존 교재의 디지털화, e-북, 앱, 오디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습콘텐츠의 수준과 영역의 확장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문해학습자의 에듀테크 친화적인 인식 및 태도 육성 지원, 디지털 매체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분석적 관점(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습콘텐츠 제공자(생산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물론,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과 관련 교육기업 등도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개발·탑재와 공유가 가능한 포털을 마련해야 한다.

문해교육 교·강사의 역할 변화와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즉, 문해 교·강사의 디지털 친화도와 전문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문해 교·강사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해 교·강사가 해당 분야 지식·정보의 전달자였다고 한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기존 역할에 더해 학습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SDG4-교육2030협의체 ‘SDG4.6워킹그룹’ 제4차 협의회('21.10.29) 결과 정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매개 역할, 폭증하는 정보와 지식의 선별 혹은 큐레이터의 역할이 학습관리자 역할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문해 교·강사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시스템, 학습운영방식에의 적응을 도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해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강사 관리·운영 체제의 구축도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문해교사의 개별적 대응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즉 단계별·영역별로 세분화된 교재를 제공하고 상호 자료 공유와 지원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의 인프라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문해교육 운영 여건과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온·오프라인 시설과 디지털 교·보재를 확보해 교육 운영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습자 모집과 교육, 교·강사 배치 및 관리·운영 등에 지역사회 참여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문해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계속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광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주관으로 한 지역별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SDG4.7(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김유경 연구개발실 전문관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SDG4.7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 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 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변혁적인 교육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와 동시에 지역·계층·종교 간 갈등 또한 가시화되는 등 불평등과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 위기를 마주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함양하는 세계 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주체 및 양상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추세다.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 차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 세계시민교육 국가교육정책의 주류화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기점으로 한국 교육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 선발을 시작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갔다(교육부, 2015).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세계시민교육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같이 접근 방식 또는 명시하는 방식은 상이하나 각 시·도교육청의 특성과 맥락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적 활성화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2018년부터 국내 이행 현황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SDG 4.7.1 글로벌지표에 부합하는 국내용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꾸준히 세계시민교육의 주류화 정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체제 고도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지표 체계를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매년 국가교육정책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주류화를 분석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 존재 여부,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사업 비중, 세계시민교육 관련 예산 비중을 통해 살펴본 주류화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교육 방향이 드러나는 세계시민교육 전담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의 맥락화를 강조하며 학습자들의 삶과 연계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 또한 전년도 대비 세계시민성,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영역에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영역의 증가율이 7.7%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문서에 명시된 전체 교육정책사업 중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사업의 비중은 7.4%며, 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17.1%까지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에서는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 영역 관련 정책사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성평등’ 영역 관련 정책사업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사업의 종류로는 ‘단위학교 지원’, ‘교원 역량 강화 학습공동체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 ‘학생 지원’ 등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사업의 주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박환보 외, 2021).

나.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교육과정 내에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세계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교육부, 2021)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 강화’를 위해 ‘존중, 자율,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 반영’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11월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교육부, 2021)의 중점과제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하며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총론 뿐 아니라 ‘전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의 논의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도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태전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있어서 사회적 실천을 동반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경기도(2020, 2021)는 「제3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과 「경기도 2021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실천하는 생태 시민 육성’을 목표로 생태전환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연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생태전환교육이 여전히 단순 환경, 과학 분야가 중심이 되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에만 초점을 둔 생태 체험형 교육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과학교육의 일부로 간주되는 등 사회·정치·경제·기술적 측면과 함께 통합적 접근보다는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이 단순히 환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가 내면화되는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또한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영역 및 내용 기준 등을 개발하여 교과별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선택과목 신설을 통해 교과 재구조화를 계획하는 등 ‘학생의 삶과 연계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비교과 활동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의 교과 또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내면에 지녀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범교과 차원에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시민교육의 방식 또한 지식전달에서 실천 및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영역이 중요시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론을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실천하는 블렌디드 교육의 형태도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다. 교사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여러 주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5년부터 한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온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이 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및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주요 글로벌 교육 의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2015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와 시·도 선도교사를 배출해 세계시민교육 교사연수, 연구회, 교수학습 활동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이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 세계시민교육 활동 참여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환보, 2020).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교사 대상 연수 및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의 접근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더욱 빠른 속도로 세계시민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확산 속도와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수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연수제공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맥락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융합적 주제를 요청하는 등 현장 교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생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국내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점에서도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특히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교육을 주요 교육 요소로 구성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맥락에 맞는 시민참여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UIL, 2022년 발간 예정).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시 연수구와 공동으로 ‘2021 평생교육 실천가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이행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시민교육 정책사업

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정책단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정부 주도가 아닌 학교 현장교사 주도로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수사례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 및 지식, 교수법과 우수사례를 전달하는 연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선도교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 현장에 세계시민교육 학습 공동체 및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주제별 교사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도교사 활동 경험을 가진 현장교사들이 소속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동료교사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수 제공 기관 주도로 주어지는 세계시민교육 주제 및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자들의 삶과 연계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연구를 실시하며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학교교육 또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교육의 기회로 삼아 제1~6기 선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팬데믹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수업모듈을 개발하기도 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자생적 연구모임으로 발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향식의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주며,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의 의지로 자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및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SDG4.7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먼저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제도화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 이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SDG4.7의 특성상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관련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다양한 관련 영역들이 각자 분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SDG4.7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엄정민, 2020).

예컨대, 차기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도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소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성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환경부, 2020).

아울러,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환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SDG4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제 정책 이행 현황 및 이행 경험 공유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의가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 또는 정책 개선 및 수립에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정책적 구동력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책 환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엄정민, 2020). 국가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당위성과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세계시민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한국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변혁적 역량’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으로 포함시켜 단순 지식 습득으로 그치는 세계시민성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주도성을 가진 세계시민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총론에서 명시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들이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명시되어야 한다. 특정 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세계시민교육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교과 성격과 교과 역량,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 성취기준 등에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 간 융합 수업 및 전학교적 접근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교육 분야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습자들의 삶의 공간과 연결돼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이 강조되는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영역을 포함한 전 교육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SDG4.7 세계시민교육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분석을 위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글로벌 지표 (SDG4.7.1)에 부합하면서도 국내의 맥락이 반영된 국내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해 세계시민교육의 주류화 정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시민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된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2020). 제3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2021-2025).
- 경기도(2021). 경기도 2021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
- 교육부(2015). 2015 세계시민교육(GCED) 중앙선도교사 발대식(2015.3.20.).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1a).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안).
- 교육부(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박환보(2020).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참여 교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환보·조대훈·박경희·박성호·엄정민(2021). “2021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20).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초·중등).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엄정민(2020). “6.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SDG4 관점에서 한국의 COVID-19 대응 진단 및 Post COVID-19를 위한 제언 : 교육 2030. 140-148.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환경부.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22 발간예정). Fifth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SDG4 모니터링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한국교육개발원

한효경 교육지표연구실장

1. 2021년 이행현황 점검

SDG4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관련해 2021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SDG4의 주요 지표에 대한 2025년 및 2030년 기준 벤치마크(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권역별·국가별 SDG4 2025/2030 벤치마크 설정의 배경과 경과를 정리했다.

가. 주요 SDG4 지표 2025/2030 벤치마크 설정 배경 및 경과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교육분야 목표는 2015년 5월 공표된 「교육 2030 인천선언 및 실행계획」(2015)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 2030 인천선언 및 실행계획」은 SDG4 이행 및 모니터링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 벤치마크(예: 2020년, 2025년 기준 등) 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2020년부터 권역별 벤치마크, 2021년부터 국가별 벤치마크 설정 논의가 시작됐다. 벤치마크 설정의 대상이 되는 지표는 2019년 지표 전문가 협력 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TCG) 회의에서 채택된 ‘SDG4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7개 지표’로 ①읽기/수학 분야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 ②교육 완수율 ③학교 밖 청소년 비율 ④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전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⑤교육단계별 최소 요구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⑥정부 총 지출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⑦형평성 지수로 구성돼 있다.

벤치마크 설정 노력이 먼저 시작된 분야는 권역별 벤치마크 설정이었다. 2020년 10월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에서는 주요 지표 중 추가적 지표 개발이 필요한 ‘⑦형평성 지수’를 제외한 6개 지표에 대해 권역별(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로 2025년 및 2030년 기준 벤치마크 설정을 요청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이하 아태지역) 소속 국가로서 유네스코통계원(UIS) 및 유네스코 방콕사무소가 주도한 아태지역 벤치마크 설정 활동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에 개최된 ‘동아시아 권역 벤치마크 설정을 위한 자문 회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해 유네스코가 제시한 동아시아 지역 2025/2030 벤치마크를 검토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했다. 이후 확정된 아태지역 벤치마크는 2021년 7월 ‘세계교육회의(Global Education Meeting, GEM) 장관회의’에서 채택됐다.

권역별 벤치마크 설정 이후, 2021년 8월부터 국가별 벤치마크 설정 활동이 시작됐다. 유네스코통계원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6개 주요 지표에 대해 전체 국가의 평균 변화 추세를 국가별 수치에 적용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2025/2030 벤치마크 수치를 각국에 제안하는 한편, 국가별로 제안된 수치를 채택하거나 자체적인 벤치마크 수치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소관 부처들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 및 내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관련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이후 2021년 10월 대한민국 SDG4 2025/2030 벤치마크가 확정되어 유네스코통계원에 제출됐다.

나. 대한민국 주요 SDG4 지표 2025, 2030 벤치마크 주요 내용

여기서는 대한민국 주요 SDG4 지표 2025/2030 벤치마크의 지표별 상세 내용과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아래 [표 1]에 구체적인 벤치마크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①읽기/수학 분야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벤치마크 보고 대상 세부 통계치는 읽기와 수학 각각 초2·3학년, 초6학년, 중3학년별로 하나씩 총 6개다. 한국은 읽기 분야에서 가용 자료가 있는 중3학년과 수학 분야 초6학년 및 중3학년 대상의 통계치를 보고했다. 읽기 분야 중3학년의 통계치는 현재 PISA 2018의 자료를 활용해 84.9%(2018)로 보고하고 있는데, 유네스코통계원은 평균 변화 추세를 고려해 한국의 벤치마크를 86.7%(2025), 88.0%(2030)로 제안했고 해당 지표의 교육부 관계 부서는 이를 변경 없이 수용했다. 수학 분야의 경우 한국은 초6학년에 대해 TIMSS 2019 자료를 활용해 95.0%(2019)로, 중3학년에 대해 PISA 2018 자료를 활용해 85.0%(2018)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두 통계치에 대해 유네스코통계원은 각각 초6학년 100.0%(2025/2030), 중3학년 88.0%(2025), 91.3%(2030)의 벤치마크를 제안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평가의 특성상 이와 같은 단순 추세에 기반한 목표치의 달성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인 초6학년 96.0%(2025), 97.0%(2030), 중3학년 87.0%(2025), 89.0%(2030)로 수정해 벤치마크를 제출했다.

두 번째 지표인 ②교육 완수율의 경우 한국은 유네스코통계원 데이터베이스(DB) 내에 해당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은 이번 벤치마크 설정 활동 기회를 계기로 본 지표를 새로 산출하면서 2025/2030 벤치마크까지 설정하고자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완수율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료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확보·가공해 2020년도 기준 초·중·고 단계별 교육완수율을 각각 100.0%, 99.95%, 99.2%로 산출했으며, 이를 유네스코통계원의 통계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후 본 지표의 교육부 관계 부서는 2020년도 수치를 참조해 ②교육 완수율 지표에 대한 대한민국 벤치마크를 초등학교 99.9%(2025/2030), 중학교 99.5%(2025/2030), 고등학교 99.0%(2025/2030)로 설정해 제출했다. 단, 이번에 신규 산출한 교육 완수율 수치가 유네스코통계원 DB에도 공식 게재되기 위해서는 향후 정식으로 원자료를 유네스코통계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표인 ③학교 밖 청소년 비율의 경우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대한 수치를 보고해 왔으며, 가장 최신연도 수치는 2018년 초 0.9%, 중 2.7%, 고 4.0%였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통계원은 평균 변화 추세를 고려해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벤치마크를 초·중·고 단계 모두 0.0%(2025/2030)로 제안했으나, 교육부 관계 부서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로서 초 0.7%(2025) 및 0.4%(2030), 중 0.8%(2025) 및 0.5%(2030), 고 1.4%(2025) 및 0.9%(2030)로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해 제출했다.

네 번째 지표인 ④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전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의 경우, 한국은 만 5세 아동의 취학률이 해당 지표에 해당한다.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학률은 2019년도 기준 89.3%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네스코통계원은 한국의 2025/2030 벤치마크를 100.0%로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 부서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로서 95.88%를 2025/2030 벤치마크로 설정해 제출했다.

다섯 번째 지표인 ⑤교육단계별 최소 요구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의 경우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의 수치가 벤치마크 보고 대상이지만 현재 유네스코통계원 DB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수치가 미산출된 상태다. 이는 해당 지표가 OECD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유네스코통계원의 공교육조사(UIS Survey of Formal Education)를 통해 산출되는 값이기 때문이며, 교사양성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OECD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해당 지표를 100%로 보고할 것을 OECD 및 유네스코통계원에 요청해 왔다. 이에 교육부 관계 부서에서는 본 벤치마크 설정 활동에서 한국의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의 통계치를 100.0%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2025/2030 벤치마크 수치 역시 100.0%로 설정해 제출했다. 단, 해당 지표 값이 유네스코통계원 DB에도 공식 게재되기 위해서는 향후 OECD-유네스코통계원 간 데이터 연계 및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표인 ⑥정부 총 지출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의 경우, 한국은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는 미산출된 상태며 GDP 대비 교육비는 2017년 기준 4.33%로 보고했다. (한편 현재 유네스코통계원 DB에는 참고통계 오류로 4.6%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수정 요청하였다.) 타 지표와 달리 이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 2030 인천선언 및 실행계획」(2015)에서 일괄적으로 지역 벤치마크를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 15-20%, GDP 대비 교육비 4-6%로 지정한 바 있어, 유네스코는 각각 15% 및 4%를 한국의 2025/2030 벤치마크로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 부서는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는 유네스코통계원의 원안을 수용했고, GDP 대비 교육비는 4.33%(2025/2030)로 벤치마크를 설정해 제안했다.

<표 1> 대한민국 SDG4 2025, 2030 벤치마크

| 지표 내용 | 대상 | 현수치 (%) | 목표치(%) | | | | UIS 제안 목표치 수용여부 및 검토의견 |
|--------------------------------------|----------------|----------------|--------|-------|--------|-------|------------------------|
| | | | '25년 | | '30년 | | |
| | | | UIS 제안 | 최종 제출 | UIS 제안 | 최종 제출 | |
| 읽기 분야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 | 초2·3학년 | - | - | - | - | - | 지표 산출 기제 부재 |
| | 초6학년 | - | - | - | - | - | 지표 산출 기제 부재 |
| | 중3학년 | 84.9 (PISA'18) | 86.7 | 86.7 | 88.0 | 88.0 | UIS 설정 목표치 수용 |
| 수학 분야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 비율 | 초2·3학년 | - | - | - | - | - | 지표 산출 기제 부재 |
| | 초6학년 | 95 (TIMSS '19) | 100 | 96.0 | 100 | 97.0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 중3학년 | 85 (PISA '18) | 88.0 | 87.0 | 91.3 | 89.0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교육 이수율 | 초등학교 | 100('20) | - | 99.9 | - | 99.9 | UIS에 현수치 및 목표치 신규반영 요청 |
| | 중학교 | 99.95('20) | - | 99.5 | - | 99.5 | |
| | 고등학교 | 99.2('20) | - | 99.0 | - | 99.0 | |
| 학교 밖 청소년 비율 | 초등학교 | 0.9('18) | 0 | 0.7 | 0 | 0.4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 중학교 | 2.7('18) | 0 | 0.8 | 0 | 0.5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 고등학교 | 4.0('18) | 0 | 1.4 | 0 | 0.9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초등학교 공식 입학 연령 1년 전 아동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 유아 | 89.3('19) | 100 | 95.88 | 100 | 95.88 |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 |
| 최소 요구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 유아 | 100(추정) | - | 100 | - | 100 | UIS에 현수치 및 목표치 신규반영 요청 |
| | 초등학교 | 100(추정) | - | 100 | - | 100 | |
| | 중학교 | 100(추정) | - | 100 | - | 100 | |
| | 고등학교 | 100(추정) | - | 100 | - | 100 | |
| 정부 총 지출 및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교육비 |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 | UIS 산출 필요 | 15 | 15 | 15 | 15 | UIS 설정 목표치 수용 |
| | GDP 대비 교육비 | 4.33('17) | 4 | 4.33 | 4 | 4.33 | 현수치 수준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 |

2. 2021년 우수사례 소개

대한민국 SDG4 벤치마크 설정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주체의 협업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 국가 SDG4 벤치마크 설정은 정부부처와 국내 SDG4 총괄기관 및 지표 모니터링 총괄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총괄하에 전반적인 벤치마크 설정 활동이 수행됐고, SDG4 지표 모니터링 담당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은 벤치마크와 통계·지표에 대한 맥락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세부지표별 교육부 관계 부서인 교육기회보장과, 유아교육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통계과 등과 더불어, SDG4-교육2030협의체에서 SDG4.1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참여했다. 해당 주체들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벤치마크 설정 활동의 의미와 지표별 현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으며, 지표별 교육부 관계 부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2025/2030 벤치마크를 설정해 제출했다. 전반적 과정에서 모든 주체의 원활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 국가별 벤치마크 설정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SDGs 이행 종료를 약 10년 앞둔 현 시점에서 SDG4 2025/2030 벤치마크를 설정한 것은 SDG4 이행의 방향과 동력을 다시 한번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설정한 벤치마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표모니터링-이행활동-이행평가’의 순환이 주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DG4국가조정관인 교육부, 국내 SDG4 이행에 대한 총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SDG4 지표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SDG4의 국내 이행을 도모하는 SDG4-교육2030협의체 기관 등 모든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자료 가용성 및 데이터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번 벤치마크 활동을 통해 현재 한국에 가용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교육 완수율 및 최소요구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정부 총 지출 대비 교육비 등의 지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자료가 산출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ICT분야 SDG4 이행현황 점검과 제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보경 글로벌정책연구부장, 박기웅 연구원

1. SDG4 달성을 위한 ICT 역량 및 스킬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ICT 역량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점점 더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ICT 역량은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UNESCO, 2018)다. 오늘날 ICT 역량이 낮거나 ICT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은 교육 기회에 있어서도 점점 더 치명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DG4-교육2030 목표에서 ICT는 유아, 초·중등, 고등, 직업기술교육훈련,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교육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인 SDG4.4.1은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나은 일자리와 연계해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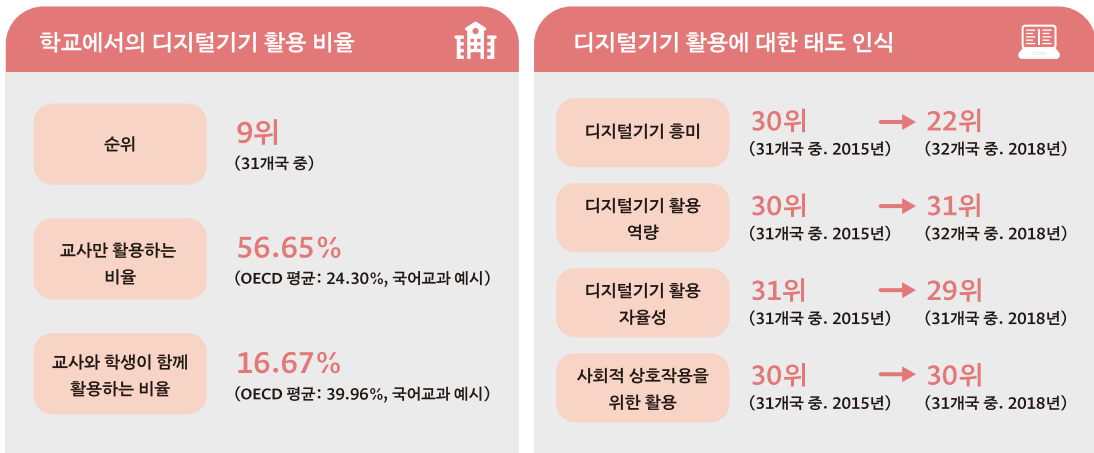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해 매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지역규모, 성별 등을 고려해 약 1% 학생들을 층화 표집한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도 검사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총점의 100점 환산 평균점수로 초등학교는 59.69점, 중학생은 65점을 기록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환경의 변화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는 전년도 평균점수(초등학교 58.53점, 중학생 59.37점)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2020년 연구를 분석해 보면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시 개인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과 온라인 수업 접속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기본적인 ICT 학습 환경의 차이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ICT 인프라 여건 개선이 리터러시 함양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시행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모든 문항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현재의 디지털 효능감이 더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디지털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경험의 제공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2021년도 검사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초중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교과수업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정보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총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전체 교육과정과 정보교과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18’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팅 사고력 평가에서는 536점을 받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를 포함한 8개 참여국 중 1위를 기록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 능력을 뜻하는 컴퓨터·정보 소양면에서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ICT를 활용한 정도는 5%로 전체 평균치 18%보다 매우 낮았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수준도 ICILS 평균 39%보다 현저히 낮은 25%로 나타나, 학습 측면에서의 ICT 활용 수준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ISA2018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며, 특히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및 태도와 관련한 지표는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학교와 가정의 기기 보급 상황과 활용도는 일정 부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인력 비율 등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별 인터넷 대역폭의 격차 등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2021년 우수사례: 「디지털 전환 시대, 공동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세미나 추진 및 리포트 발간

올해 SDG4-교육2030협약의 ICT워킹그룹은 SDG4 달성을 위한 ICT의 역할을 조명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 분야의 SDG4 이행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

기와 사회적 불평등 등 미래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관련하여 공동의 진보를 추구하기 위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전망하고 제안해 보았다. 세부 논의로는 ▲디지털 미래사회의 교육 비전(김문조 명예교수, 고려대) ▲인류세 시대, 새로운 인본주의 디지털 교육(박범순 교수, KAIST) ▲AI와 교육의 세 접점: 도구, 활용, 윤리(이상욱 교수, 한양대) ▲인공지능과 젠더(임소연 교수, 숙명여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양방향의 풍요로운 해체(정용주 교사, 탑산초) ▲디지털 전환기의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학교교육의 접근법(이은상 장학사,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교육과 국제교육개발협력(박환보 교수, 충남대)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의제(인류세, AI와 교육 등)에 부합하고 SDG4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더불어 대국민(동시 시청자수: 133명, 실시간 재생횟수: 810회) 세미나를 열어 SDG4-교육2030에서의 ICT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켰다.

세미나에서 김문조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 미래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는 지적 자원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성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만유소통의 시대로 특징되는 지능화 사회에서 일-삶-삶의 삼중적 나선모형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순 교수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지구에 두드러진 변화를 야기하면서 ‘인류세’ 시대가 도래했으며, 개발과 성장 위주의 단선적 근대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교수는 AI와 교육의 접점을 ▲학습도구의 측면 ▲AI 활용 역량 강화의 측면 ▲AI와 사회가 맺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AI와 교육의 접점은 결국 기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소연 교수는 AI의 젠더 편향적 사례를 검토하며, 디지털 교육의 비배제성, 비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용주 교사와 이은상 장학사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담론을 이끌어냈다. 먼저 정용주 교사는 비대면 교육에서 디지털 수업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이 목적과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개별화, 주도성,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구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은상 장학사는 현장 중심의 학교교육 접근법을 다루며, ▲공동체 주도의 학교교육 방향 전환 ▲교육과정·학습환경·학교 문화의 총체적 변화 ▲학습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실천가이자 연구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환보 교수는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중요 과제로 부각하며,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수호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국제 협력이 교육내용과 여건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SDGs 이행의 10년”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언 :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응한 범지구적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新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술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는 SDG4의 달성을 촉진하는 전략과 방법론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질병, 분쟁 등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한 상시적 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교육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 및 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원격교육과 교실 수업 중심의 오프라인 전통교육이 혼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러닝의 일반화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범지구적 디지털 전환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기본권으로서의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선순환적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사회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증대되고 있는 격차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정보 격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식과 생각의 격차, 감정의 격차, 문화의 격차로 전이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격차와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불이익의 문제, 한발 더 나아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접근성과 활용의 이슈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기술과 기본권으로서의 디지털 역량 함양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2021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디지털 전환 시대, 공동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탐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결과 분석.
- KDI. “2PM #경제용어”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OECD(2020). A framework to guide an educatio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 UNESCO(2018). Quick Guide for Education Indicator for SDG4.

V. SDG4 국내 주요 연구 및 발간물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SDG4 교육 일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 임소현 외 | 한국교육개발원 |
| | |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 | |
|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요약본 | 국제미래교육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egqw-yEfzE9THkSmHb9ImZPp5ssGdkx_1639726410_2.pdf | |
|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돋보기 | 윤선이 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Xk-3JR4AFqQ134c4DPwhYTV9hh8u3bY_1636450341_2.pdf | |
| SDG4.1 초·중등교육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 구남욱 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770&s=kice&m=030109 | |
|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 구남욱 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769&s=kice&m=030109 | |
| |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선호 외 | 한국교육개발원 |
| | |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10 | |
| |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성취 특성 [2021 KICE 이슈페이퍼] | 최인선 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752&s=kice&m=030109 | |
| |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성취 특성 분석: 성취수준별 특성 및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 특성을 중심으로 | 이소연 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707&s=kice&m=030109 | |
| SDG4.2 영유아 보육·교육 | 「2019 개정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지원방안(II) | 김은영, 구자연 외 | 육아정책연구소 |
| | | https://kicce.re.kr/ | |
|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IV) | 김근진, 유해미 외 | 육아정책연구소 |
| | | https://kicce.re.kr/ |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문무경, 양미선 외 https://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
| | 다문화 영유아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지원 방안 | 박은정, 문무경 외 https://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
| |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 (IV) | 최효미, 이정원 외 https://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
|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 이희현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48 | 한국교육개발원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 최윤경, 김근진 외 https://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I) | 이정림, 김자연 외 https://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
| SDG4.3 고등교육 | [2021 산학협력 포럼 자료집] 코로나19 채용시장의 동향과 과제(2021.9.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index.ht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제20회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변화와 전망 (2021. 9.2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index.ht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제64회 정책포럼 자료집] 온택트 시대, 주요국 고등교육 대응 전략과 과제 (2021. 6. 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index.ht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KCUE HIGHER EDUCATION ISSUE] 고등교육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제언(2021년 제3호) | 김정희, 황정원 http://www.kcue.or.kr/index.ht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서재영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41 | 한국교육개발원 |
| |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조옥경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39 | 한국교육개발원 |
| |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영현황 분석(PR 2020-11-706) | 김병주 외 http://library.kcue.or.kr/subhomepage1/usmn000.jsp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 코로나19, 비대면 산업동향과 대학생 취업인식 분석(PM 2021-40-108) | 김정희 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http://www.kcue.or.kr/index.htm | |
| SDG4.4 직무스킬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숙련변화(III) : 한국(KRIVET)-독일(BIBB) 공동과제 | 김미란 외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krivet.re.kr/ku/da/kuBAAVw.jsp?lg=1&gk=ALL&gv=BIBB&div=A&order=By=NEW&gy=ALL&type=0&gn=E1-E120220012&target=list_1 | |
| |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허영준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20006 | |
| |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 윤수린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20008 | |
|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혁신역량 진단 및 개선 방안 | 김종우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20007 | |
| |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 최동선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20009 | |
| 일-학습-여가-생활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체계 구축 방안 | 채창균 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10167 | | |
|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 유한구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10269 | | |
| 진로자본 구축을 위한 초·중등 진로체험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역량을 중심으로 | 이민욱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10185 | | |
|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연구 | 한상근 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20017 | | |
| SDG4.5 교육형평성 |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 김원정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 https://www.kwdi.re.kr/ |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최윤정 외 https://www.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I) | 김지수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13 | 한국교육개발원 |
| |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 학교 및 지역 수준에 대한 기초연구 | 남궁지영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34 | 한국교육개발원 |
|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 김돌순 외 https://www.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 | 최윤정 외 https://www.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 이미정 외 https://www.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 김혜자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21 | 한국교육개발원 |
| SDG4.6 평생교육 | 포르보고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 | 에드가르 포르 외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7W9RWdulB-JhXDcR0j9AlvsTM8QvuLC_1639726821_2.pdf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 | 유네스코 https://www.nile.or.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실천사례 보고서 (국, 영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nile.or.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2020년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집(e-Book)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nile.or.kr/ebook/2021/22/index.html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2020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nile.or.kr/ebook/2021/21/index.html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SDG4.7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 2021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 박환보 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 | | http://www.unescoapceiu.org/board/k43 | |
| | 2022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 | | https://www.gcedclearinghouse.org/node/101266 | |
| |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 사회과군 편 | 김다영, 김병연 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 | | http://www.unescoapceiu.org/post/4329 | |
|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 서예원 외 | 한국교육개발원 |
| | |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24 | |
| | 뉴 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 김현진 외 | 한국교육개발원 |
| | |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14 | |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 유네스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YtZmTjhH-kcNyyvHNAYjysCxAhI05Yyq_1622006543_2.pdf | |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 권영락 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https://www.kice.re.kr/filedown8.do?fileN-M=RRC202100100.pdf&filePath=/resrchBoard/2021/09/1632983717264_5894776093937968.pdf | | |
| 트래시핵(Trash Hack) 쓰레기 줄이기 방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학습: 교사 안내서 | 유네스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 https://unesco.or.kr/data/report/list/?s_cat=2 | | |
| 한반도 세계시민과 평화·통일교육 | 정병호 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vvqCOXYIX-tQrkYR13fxAaxU61LGjT_1640240188_2.pdf | | |
| Feasibility Study on Monitoring Global Citizenship Competen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아론 배네봇 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
| | https://www.gcedclearinghouse.org/resources/feasibility-study-monitoring-global-citizenship-competences-asia-pacific-region-phase-i | | |
| Peace Education in Northeast Asia: A Situational Analysis | 강순원 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
| | https://www.gcedclearinghouse.org/resources/peace-education-northeast-asia-situational-analysis-1 | |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 SDG4 모니터링 | 2021 OECD 교육지표 | OECD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19&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간추린 교육통계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44&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4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교육통계분석자료집-평생교육통계편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45&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교육통계연보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취업통계연보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58&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kedi.ebook-library.kr/ebook/ecatalog5.php?Dir=99 | |
| |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3&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
| | 교육ICT | 2021년 교육정보화 백서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 |
| | |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보고서 | 장시준 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 |

| 분야 | 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
| | 2021년 초중등학교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 분석 | 장시준 외 https://www.keris.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교육 분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체제 구축 연구: 교육 데이터 맵을 중심으로 | 이기준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36 | 한국교육개발원 |
| | 디지털 전환 시대, 공동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탐색 | 김문조 외 https://www.keris.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인공지능과 교육 | 평천 미야오 외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UQ2Cd7p-ByyvlMqVlsjyoVtPou9Z3i_1638430937_2.pdf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 노지마 무라토바 외 https://unesco.or.kr/assets/data/report/Z0mxZ1iXuU-W6H7k2lu3zw87FgC6GbQ_1640257390_2.pdf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초등교육 중심으로 | 정재원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16 | 한국교육개발원 |
| | 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교육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황준성 외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40 | 한국교육개발원 |
| |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 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컨설팅 도구 | 조현아, 임진호 외 https://www.keris.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COVID-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 장시준 외 https://www.keris.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VI. SDG4 국제 주요 정책문서

- 가. “파리 선언”: 2021 세계교육회의 고위급회의
(2021 Global Education Meeting — High-Level Segment)
결과문서 (2021년 11월 10일 채택)

- 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베를린 선언”:
202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
결과문서 (2021년 5월 19일 채택)

- 다. “연수 선언”: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결과문서 (2021년 10월 29일 채택)

가. “파리 선언”: 2021 세계교육회의 고위급회의 (2021 Global Education Meeting — High-Level Segment) 결과문서 (2021년 11월 10일 채택)

번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파리 선언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세계적 투자 요청 Paris Declaration: A Global Call for Investing in the Futures of Education

서문

Preamble

1. 우리는 국가 및 정부의 수반, 장관, 대표; 다자기구, 시민사회, 청년, 교원, 재단 및 민간부문의 대표로서, 2021년 11월 10일에, 2021 세계교육회의(2021 GEM)에 모였다. 우리는 세계교육의 수도인 프랑스 파리에서, 모든 주체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를 환영한다.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ministers, and delegates; leaders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youth and teacher representatives, found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met on 10 November 2021, at the Global Education Meeting (2021 GEM). We welcome the strong commitment of all actors demonstrated here in Paris, France, a global capital of education.

2.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위기와 불평등 악화에 긴급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간 어렵게 이룬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를 향해 진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벽지(僻地)거주자, 여성 및 여아, 위기·분쟁의 영향을 받는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등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및 학습자를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We emphasize the urgency to tackle the educational crises and inequalities exacerbat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are threatening the hard-gained progress towar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ushing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and learners further behind, especially those living in poverty, in remote and rural areas, women and girls, those impacted by crises and conflic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3.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교육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저소득 및 중하위소득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추경예산의 1% 미만만이 교육분야에 배분되었다.

While the pandemic has weighed on the world's economies, we are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impact that the pandemic continues to have on education financing, particularly in low- and lower-middle-income countries, where less than 1% of COVID-19 stimulus packages was allocated to education.

4. 우리는 교육의 형평성, 질, 효율성이 서로 경쟁하는 목표가 아님을 인지한다. 교육정책 중 투자가 근거에 기반을 둘 때, 교육의 형평성, 질, 효율성은 서로를 강화하며 시너지 효과와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

We recognize that equity, quality and efficiency are not competing goals in education. They reinforce each other when investment in education policies is based on evidence and consider synergies and adequate trade-offs.

5.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젠더-변혁적인 교육시스템과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주요 대응으로서 교육 옹호에 대한 다자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교육협력 체계 개편과 오늘 공식 발족하는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advocating education as a key response to recovery from the COVID-19, building resilient, inclusive, innovative and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 systems and societies. We welcome and support the ongoing reform of the Global Education Cooperation Mechanism and the new SDG4-Education 2030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officially inaugurated today.

6. 우리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의 보고서에 사의를 표한다. 보고서는 전세계 정부, 국내 이해당사자, 시민에게 △평생동안의 양질의 교육권 보장, △공공재 및 공유재로서의 교육 강화를 원칙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

We appreciate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which calls on governments, national stakeholders and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forge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governed by the following two foundation principles: ensuring the right to quality education throughout life and strengthening education as a public and common good.

우리의 약속: 교육에 대한 투자

Keeping our promises: invest in education

7. 교육은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요하는 투자이다. 우리는 국내 자원, 특히 조세수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며 교육 재정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케냐타 글로벌교육파트너십(GPE)의 개발도상국 정부 대표 선언문 등 이전의 요청과 같이 국내 교육 재정의 우선시, 보호 및 증대를 강조한다.

Education is an investment that requires sustainable funding. We recognize that domestic resources — particularly through tax revenues — are essential and remain a primary source of funding for education. We build on the preceding calls for action to prioritize, protect and increase domestic finance for education, including the Kenyatta Declaration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y partners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8. 우리는 모든 정부에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과 2018·2020 세계교육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다짐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We urge all governments to fulfill without delay the commitments they made in principle at the World Education Forum in Incheon in 2015 and the Global Education Meetings in 2018 and 2020:

-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4-6%, 공공지출의 최소 15-20%를 교육에 할당한다.
allocate at least 4-6% of GDP and/or at least 15-20% of total public expenditure to education;
- 국가부양책의 적절한 몫을 교육, 특히 소외된 학습자들의 학교 (재)등록, 학습 회복 및 사회정서적 웰빙, 직무기술 개발에 분배한다.
devote an adequate share of national stimulus packages to education, particularly towards targeted support for marginalized learners' school (re-) enrolment, learning recovery and socio-emotional well-being, as well as skills development for employment;
- 교육 국제 원조의 규모, 예측가능성, 효과성을 다음을 통해 증대한다. a)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에 국민총소득(GNI)의 0.7% 할당, b)전체 ODA 중 교육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 c)교육에 대한 국제 원조를 국가교육계획에 맞추고 원조 효과성 원칙과 부합하도록 한다.
increase the volume, predic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id

to education by (a) meeting the benchmark of 0.7% of donor gross national income (GNI)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developing countries; (b) increasing the share of ODA to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total ODA; and (c) ensuring that international aid to education is aligned with national education plans and consistent with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9. 우리는 모든 정부에 교육예산의 증대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We urge all governments to develop strategies to increase resources for education and use these resources effectively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To this end,

- 이를 위하여, 특히 조세제도의 설계와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안과 공공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 재원을 더욱 증대한다.

Raise more revenues to increase education budgets, in particular via measures that strengthen the design and the equity of the tax system, as well as through innovative financing measur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 포용적이고 공평한 보육·교육, 교사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청소년 직무기술, 교육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SDG4에 대한 회복을 위한 주요 우선순위 정책에 투자한다.

Invest in key policy priorities for recovery and accelerated progress towards SDG 4, such a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care and education from the earliest age, teachers'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youth employability skills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ducation sector.

나아가며

The way forward

10. 우리는 논의와 더불어 오늘 출범한 교육재원조달 및 교육분야 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유네스코, 회원국 그리고 모든 파트너들이 SDG4-교육2030 고위급 운영 위원회와 세계교육관측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 정책분석, 옹호, 지식 공유, 역량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We will maintain the dialogue and renewed cooperation on education financing and monitoring progress of education outcomes launched today and call on

UNESCO, its Member States and all partners to collaborate in research, policy analysis, advocacy, knowledge sharing and capacity development through the SDG4-Education 2030 High Level Steering Committee and its tools, including the Global Education Observatory.

11. 우리는 고위급 운영위원회(HLSC)에 i) 지역별 자문을 통해 세계교육계의 2025년까지의 전략적·주제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ii) SDG4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격차 완화를 위한 우선이행사항을 결정하고, iii) 우선순위 대응 및 촉진, 2021 세계교육회의 파리 선언의 후속조치로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재원마련 관련 이행권고사항을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We mandate the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to: i) decide in consultation with its constituencies on strategic and thematic priorities for the global education community up to 2025 at its annual meeting in 2022, ii) decide on priority actions to fill data gaps for effective monitoring of SDG 4 and iii) decide on recommended actions for increased and more efficient and equitable education financing to address the priorities and catalytic actions, and to follow on the 2021 GEM Paris Declaration commitments.

12. 우리는 모든 정부와 파트너들의 대표들에게 이 파리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청하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We call on leaders of all Governments and Partners to express support for this Paris Declaration and commit ourselves to invest in education for the future of humanity and the planet.

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베를린 선언”: 202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 결과문서 (2021년 5월 19일 채택)

번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베를린 선언문 Berlin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전문

Preamble

1. 2021년 5월 17-19일 온라인으로 유네스코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개최하고 유네스코독일 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협력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세계회의에서 정부와 국제·정부간·비정부 기관, 시민사회, 청년, 학계 등 모든 교수·학습 분야에서 참가한 우리는 본 선언문을 채택한다.

We, participants from governments,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youth, the academic community, the business sector and all spheres of teaching and learning, convened online from 17 to 19 May 2021 for the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zed by UNESCO in cooperation with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Germany, and with the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as advisory partner, adopt this declaration.

2. 우리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극적인 상호 연관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특히 지구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의 대량 손실, 오염, 전염병,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 폭력적인 갈등, 기타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과 같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때문에 서로 및 자연과의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보살피고 평화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길로 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We are convinced that urgent ac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dramatic interrelated challenges the world is facing, in particular, the climate crisis, mass loss of biodiversity, pollution, pandemic diseases, extreme poverty and inequalities, violent conflicts, and othe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rises that endanger life on our planet. We believe that the urgency of these challenges, exacerbated by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at sets us on the path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more just, inclusive, caring and peaceful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with nature.

3. 우리는 교육이 사고방식과 세계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영역, 즉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전 궤도가 지구를 위해하는 경제적 성장만을 향하지 않고 행성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We are confident that education is a powerful enabler of positive change of mindsets and worldviews and that it can support the integration of al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ensuring that development trajectories are not exclusively orientated towards economic growth to the detriment of the planet, but towards the well-being of all within planetary boundaries.

4. 우리는 SDG4.7에 기반을 두고 17개 SDGs의 원동력인 ESD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전환의 토대라고 믿는다. ESD를 통해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와 협업, 문제해결, 복잡성, 위기대처, 회복성 구축,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SDG4-교육 2030에 정의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인지 및 비인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ESD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차별금지, 형평성과 성평등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촉진해야한다고 믿는다. 더불어 ESD는 문화간 이해, 문화적 다양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포용성,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세계시민의식을 장려해야한다.

We believe th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chored in SDG 4.7 and as an enabler for all 17 SDGs, is the foundation for the required transformation, providing everyone with th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become change ag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enables learners to develop their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such as critical thinking and competences for collaboration, problem solving, coping with complexity and risk, building resilience, thinking systemically and creatively, and empowering them to take responsible action as citizens, fulfilling their right to quality education

as defined in SDG 4 -Education 2030. We believe that ESD must be based on and promote respect for natures, as well as human rights, democracy, the rule of law,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gender equality. In addition, it should promot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inclusion and the notion of responsible and active global citizenship.

5. 우리는 정책과 학습 환경 변혁, 교사의 역량개발, 청년 권한부여, 지역 수준에서 ESD 활동을 동원하기 위한 향후 10년 동안의 지침 문서로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년’ 체계 및 실행 로드맵을 환영한다.

We welcome the new ‘ESD for 2030’ framework and its Roadmap for implementation as our guiding documents for the next 10 years to mobilize action on ESD in the areas of policy, transforming learning environments, capacity development of educators, youth empowerment, and local level action.

Our commitment

우리의 약속

6. 우리는 각자의 임무와 책임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와 역량, 가용 자원, 국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We, within our respective mandates and in our areas of responsibility, taking into account our needs, capacities, available resources and national priorities, commit to the following:

- a) 환경 및 기후행동을 핵심 커리큘럼으로 지닌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모든 측면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한 통합적인 ESD 관점을 유지하면서, ESD가 우리 교육체계의 기본 요소임을 보장한다;

Ensure that ESD is a foundational element of our education systems at all levels with environmental and climate action as a core curriculum component, while maintaining a holistic perspective on ESD that recognizes the interrelatedness of al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b) ESD를 평생학습 관점에서 유아기부터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을 포함한 고등·성인 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더불어 비형식·무형식 교육에 통합시켜 모든 개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생애적이고 전장소적 학습 기회를 갖도록 한다;

Integrate ESD in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training from early childhood to tertiary and adult education,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and into non-formal education and informal learning, so that all individuals are provided with lifelong and life-wide learning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 변화의 개인·사회 차원에 대한 인지·사회·정서·행동 역량을 공동으로 강조하여 ESD를 구현하고, 지속가능발전과 형평성,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한 개인 행동의 변화와 경제·사회 구조에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변화를 촉진하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 활동을 증진한다;

Implement ESD with joint emphasis on th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and action competencies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al dimensions of transformation, promoting individual behavioral chan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qual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s well as fundamental structural and cultural changes at the systemic level of economies and societies, and also promoting the required political action to bring about these changes;

- d) 연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민주적 의사결정, 토착지식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인간과 지구의 안녕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변혁적인 경제를 증진하고, 미래의 세계적 위기에 대한 회복력과 준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지식과 데이터 공유 접근 장려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재설계에 ESD의 힘을 활용한다;

Harness the power of ESD for the redesign of our societies encouraging, inter alia,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 and data sharing to facilitate research, evidence-based policies,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the recognition of indigenous knowledge, to promote sustainable and transformative economies centered on respect for the well-being of people as well as for the planet, and to enhance resilience and preparedness for future global crises;

- e) 교육기관이 참여와 적극적인 시민성, 형평성과 성평등, 건강, 자연과의 연계와 환경에 대한 존중,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고, 학습이 실험적이고 행동 중심적이며, 지역화되고, 문화적 특성을 띤 곳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내는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해 줄 때, 학습자와 학교 공동체가 자신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게됨을 인식하며 기관전체적 접근을 증진한다;

Promote a whole-institution approach, recognizing that learners and the school community become meaningfully engag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democratic participation when their learning institutions

become living laboratories for participation and active citizenship, equity and gender equality, health, connections with nature and respect for the environment,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consumption, where learning is experiential, action-oriented, localized and culturally specific, allowing learners to learn what they live and live what they learn;

- f) 기후변화를 ESD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라 ESD 이행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군소도서에 특히 중점을 둔다;

Recognize climate change as a priority area of ESD of particular importance t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s they require special attention in terms of ESD implementation due to their increa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 g) 또한 ESD를 증진하기 위한 교사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필수적인 교육의 변혁을 위한 전문야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교사 및 교육계 종사자의 역량개발에 투자한다;

Also recognize the crucial role of teachers to promote ESD and invest in the capacity development of teachers and other education personnel at all levels and to ensure a whole-of-sector approach to the necessary transformation of education;

- h) 기술의 접근과 개발, 활용이 책임있고 안전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위험성과 혜택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 사고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교육자원공개와 과학공개, 합리적인 비용의 ESD를 위한 온라인 학습 시설을 증진하도록 새로운 디지털 및 녹색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Harness the potential of new, digital and 'green' technologies / to ensure that the access, development and use of technologies is responsible, safe, equitable, inclusive and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sustainability principles with a proper assessment of risks and benefits, / as well as promotes open educational resources, open science and affordable eLearning facilities for ESD;

- i) 개인적·사회적 변혁을 위한 학습기회의 공동창작자로서 ESD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인 청년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Empower young people as change ag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creating opportunities and providing tools for them to engage in

ESD as co-creators of learning opportunities for individual and societal transformation;

- j) 상황에 맞고 긴급상황 중 교육에 ESD를 포함시키는 혁신적인 ESD 정책을 증진하여 포용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과 난민, 분쟁·위기·자연재해의 피해자를 포함한 소외 계층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Prioritize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ugees and persons affected by conflict, crisis and natural disasters, through inclusive approach by promoting innovative ESD policies which are contextualized and embedding ESD in emergency education;

- k)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지속가능성의 과제와 잠재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ESD의 성주류화를 보장한다;

Emphasize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access to knowledge and skills, and ensure gender mainstreaming in ESD which enables a more profound and holistic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 l) ESD를 빈곤(특히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동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있는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을 포함한 개인적·사회적 수요에 맞는 적합한 역량을 제공한다;

Mobilize ESD to combat poverty, particularly extreme poverty, and provide learners with relevant competencies to meet individual and societal demands, including through TVET and skills development for sustainable livelihoods to ensur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ive decently;

- m) 교육부는 정부전체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부처와 협력하고, 더불어 비정부기구, 학계, 기업, 청년 등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거버넌스 단계에 있어 ESD에 대한 다분야간 및 다학제간 협력을 증진한다;

Enhance multi-sectoral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on ESD at all levels of governance, with Ministries of Education collaborating with all other Ministries that affect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sure a whole-of-government-approach, with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Ministries of Environment at the core, as well as with all other relevant stakeholder

groups,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academia community, the business sector, youth, and others;

- n) 국제적, 대륙적,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 및 기타 관련성 있는 개발 의제에 대한 추가 조율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간 네트워크를 증진시킴으로 이러한 노력이 상호지원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ESD의 구조적 주류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한다;

Support the further alignment,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sustainable economy and other relevant development agendas, and enhance networking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in order to ensure that efforts are mutually supportive, complementary and support structural mainstreaming of ESD;

- o) 코로나19 시기와 이후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ESD의 국내적·국제적 재정 지원을 보호하고, 모든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힘을 강화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양질의 교육과 청년 권한부여를 증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Allocate sufficient resources and protec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ng of ESD at the time of Covid-19 and beyond, and emphasize the rol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lays in promoting quality education and youth empower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ways that strengthen the power of education in making all societies more just and sustainable;

- p) 실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SDGs와 특히 4.7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맥락에서 ESD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ESD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ESD 진척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증진함으로써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Monitor ESD progress, in the context of the overall monitoring of the SDGs and Target 4.7 in particular, in order to ensure that implementation is continuously improved and helps ensure that no-one is left behind, put in place assessment systems on ESD and enhance research on how to evaluate ESD progress.

- 7. 우리는 유네스코가 유엔의 ESD 주도기관으로서 회원국과 협력하여 유니트윈과 유네스코 석좌,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 지정제도 등 관련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이행진척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보장하여 본 선언의 이행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We invite UNESCO, as the lead United Nations agency for ES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laration in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mobilizing its networks, including UNITWIN/UNESCO Chairs, UNESCO Associated Schools and UNESCO designated sites, among others, and ensuring regular reviews of implementation progress.

- 우리는 2021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 15)과 2021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 및 그 이후 주요 이정표를 내다보며, 관련 글로벌, 대륙적, 국가적, 지역적 절차를 통해 본 선언문과 그 조항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We commit to taking this declaration and its provisions forward through relevant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processes, looking ahead to the important milestones such as 2021 United Nations Biodiversity Conference (COP 15), the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 26) and beyond.

- 사람과 지구를 위한 변혁적 학습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행성을 위해 배우고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Transformative learning for people and the planet is a necessity for our survival and that of future generations. The time to learn and act for our planet is now.

다. “연수 선언”: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결과문서 (2021년 10월 29일 채택)

번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선언문 Yeonsu Declaration for Learning Cities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
Building healthy and resilient cities through lifelong learning

전 문

Preamble

1. 전 세계 64개국 229개 학습도시의 시장, 부시장, 행정가 및 대표, 교육경영진, 교육전문가, UN기구 대표, 민간부문, 지역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가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이하 ICL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연수구에 모였다.

We, the mayors, deputy mayor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from 229 learning cities in 64 countries worldwide, education executives, education experts, representatives of UN agencies, the private sector, and regional, internation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convened both online and in person in Yeonsu, Republic of Korea, from 27 to 30 October 2021 for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CLC), dedicated to building healthy and resilient cities through learning.

2.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전 세계 정부가 학습 기관을 폐쇄하여 190개 이상 국가의 16억 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성인학습자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례없는 위기 상황 하에 모였다.

We gather during an unprecedented crisis that emerg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endangered the health of populations and forc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close learning institutions, affecting nearly 1.6 billion children and students in more than 190 countries and countless adult learners, with a profound impact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3.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시가 건강을 위한 학습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다.

We underline that with more than half of humanity living in urban areas, cities have a key role in promoting learning for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4.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도시의 불평등을 가속화했으며, 기존의 문제들이 악화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더이상의 건강 불평등 증가 위험을 막기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집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e recognize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vulnerable populations hardest and has fuelled inequality in cities, exacerbating pre-existing issues as well as giving rise to new forms of inequality, and this requires a collective response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to avoid the risk of an even greater increase in health inequality.

5.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위급 속 혁신 전략 및 프로그램 시행을 확장하는 역량을 보여 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회원 도시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

We commend members of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on their commitment to lifelong learning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their efforts to promote health literacy among local populations, and their capacity to now expand on innovative strategies and programmes implemented during the crisis.

6.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훌륭한 적응력과 헌신을 통해 제5차 ICLC 개최지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연수구와 구청장께 감사를 전한다.

We convey our gratitude to the Mayor of Yeonsu and his city for their leadership as hosts of the fifth ICLC, demonstrating great adaptability and commitment throughout this period of difficulty.

평생학습을 통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약속:

Our commitment to building healthy and resilient cities through lifelong learning

우리는 다음을 약속한다:

We commit to:

7. 건강을 위한 평생학습과 회복력 구축을 도시 의제의 중심에 뒀어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도시 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그러한 리더십의 파급을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 인식한다;

demonstrating the political will necessary to place lifelong learning for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at the centre of our cities' agendas, recognizing the influence this has on developments within the city as well as the resonance of such leadership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8. 도시의 모두를 포함하고, 건강관련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고려하여, 건강을 위한 학습 이니셔티브 및 정책 구현을 위해 각 도시의 특수한 상황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인다;

paying attention to the specific contextual factors of each of our cities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and initiatives for learning for health in a way that involves everyone in the city and considers local communities' social and cultural perceptions of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Indigenous knowledge;

9. 위기에 대응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성 및 재활공공의료서비스, 교육, 대중교통, 주택 및 위생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의 유지와 제공을 위해 조정된 지역 정책을 시행한다;

implementing, in response to crises, co-ordinated local plans for the preservation and provision of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education, public transport, housing and sanitation;

10. 바이러스 관련 지식 습득과 전파 예방, 자기보호 및 건강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일련의 교육 도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협력한다;

working with and empowering local people to develop capacities to protect their own health by providing an array of educational tools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bout the virus, transmission prevention, self-protection and effective use of the healthcare system;

11. 도시의 건강을 위한 학습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정신건강과 웰빙, 건강문해력을 위한 개인 및 사회적 자원과 건강을 위한 시민의식을 포함하는 개념;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learning for health in cities: a concept which include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nd a personal and societal resource for health literacy and citizenship for health;

12. 건강을 위한 학습 차원으로서 도시에서 건강문해력(기술을 포함하여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건강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함)을 증진하고 지역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고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지원한다;

as a dimension of learning for health, promoting health literacy in the city — meaning the ability to locate, understand and critically evaluate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through technology, and to apply that information to solve health issues — and supporting local people to identify false information and reduce its impact on health-related decision-making;

13. 학습자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관련하여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건강 문제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과 세계 보건의 공동선을 인식하여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한다;

strengthening citizenship for health in recognition of the wider societal impact of health issues and the common good of global health, giving learners more agency to act with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their own health and the health of their communities;

14. 특히 위기 시 도시에서의 학습 지속과 관련하여 지역 학습 시스템의 복원력과 더불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미래의 혼란에 대비하여 학습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도 제공하는 공동체 복원력 측면에서 도시의 회복력(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분야 계획, 지역사회에서 장기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향식 및 하향식 정책과 실천)을 강화한다;

strengthening resilient cities in terms of community resilience — multi-sectoral planning involving local people, and bottom-up and top-down policies and practices to foster long-term resilience in communities — as well as the resilience of local learning system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continuation of learning in cities during crises, as well as ways of protecting learning systems in the face of future disruption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y.

15. 취약한 부분은 대부분 전 영역에 교차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개별 학습자는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음을 이해하고, 학습 기회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요구를 포함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보장한다;
ensuring that learning opportunities involve and respond to the needs of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children, understanding that vulnerabilities are often intersectional, meaning individual learners may experience multiple forms of disadvantage at the same time, and that people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often have lower levels of health literacy;
1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의 건강과 회복력, 즉 학습의 지속과 건강교육의 제공에 맞추어 학교, 대학,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TVET) 기관을 포함한 형식교육 부문이 기여한 점을 인식한다;
recognising the contributions of the formal education sector, including schools, universities and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stitutions, to learning for health and resilience in cities throughout an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namely their adaptability in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learning and their provision of health education;
17. 건강 인식에의 학습기회 창출 및 건강문해력 증진을 위한 기술 사용 장려에 있어, 건강에 대한 유아 보육 및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과 청소년 및 성인 학습 센터 및 조직의 장기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지역 비형식학습 제공자의 역량을 구축한다.
building the capacities of local non-formal learning providers, recognizing the positive impact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on health, as well as the long-term roles of youth and adult learning centres and organizations in creat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health awareness and promoting the use of technology for health literacy;
18. 건강을 위한 학습과 가정, 지역 이웃, 직장, 녹지 공간, 대중 교통, 시립 건물 및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회복력 구축을 위해 도시의 비형식 공간을 활용한다;
making use of informal spaces within our cities for learning for health and to develop resilience, including homes, local neighbourhoods, workplaces, green spaces, public transport, municipal buildings and the digital sphere; and
19. 도시계획 결정이 건강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시 설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건강 전문가, 실무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건강 부문이 잘 대표되도록 도시 수준에서 평생학습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broadening the scope of stakeholder involvement in lifelong learning at the city

level so that the health sector is well represented, including health professionals, practitioners and experts, as well as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urban design in the knowledge that city planning decisions impact health and learning;

20.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이 모든 17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특히 SDG 3(‘건강 및 웰빙’), SDG 4(‘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 5(‘성평등’); SDG 8(‘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SDG 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및 SDG 13(‘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strengthening our efforts to achieve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sert the contributions of learning cities to all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SDG 3 (‘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SDG 5 (‘gender equality’); SDG 8 (‘employment and decent work’); SDG 11 (‘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nd SDG 13 (‘combat climate change’).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는 다음을 약속한다:

We commit to:

21. 우리는 건강을 위한 학습 강화를 위해 이러한 약속을 지역 행동 및 개발 전략에 통합하고, 특히 포스트팬데믹 복구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최근 시장들의 모임을 활용하여 도시의 회복력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We will endeavour to integrate these commitments into local ac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order to strengthen learning for health and to develop resilience in our cities, specifically by capitalising on the recent mobilisation of mayors to design and implement post- pandemic recovery plans.

22. 비상사태에서 일상으로 전환함에 있어, 우리는 학습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접근법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각된 창의성을 활용·보존할 것이다.

In the transition from emergency to normality, we will capitalize on and preserve the creativity that has emerg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more collaborative approaches to learning.

23. 우리는 이러한 지역 조치, 개발 전략 및 전염병 후 복구 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다양화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재정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이다.

We will diversify resources, raise funds and develop financial mechanisms to ensure the realisation of these local actions,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st-pandemic recovery plans.

24. 우리는 미래 위기에 대비하여 교훈을 얻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도시의 대응을 연구기반 및 데이터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We will conduct a research-based and data-driven review of the city'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learn lessons and build resilience in preparation for future crises.

25. 우리는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차원의 도시 내 지식공유, 기술이전,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As members of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we will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the network through knowledge-sharing, technology transfer and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in cities at the global level.

26. 우리는 각국 정부가 건강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의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We call on national governments to adopt new policies for lifelong learning for health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ilient cities in UNESCO Member States.

27. 우리는 유네스코가 포스트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네트워크, 특히, 유네스코 도시플랫폼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We urge UNESCO to reinforce collaboration across its networks, and specifically between the UNESCO Cities Platform and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during the post-pandemic period.

28. 나아가, 우리는 신규 네트워크의 전략에 제시한대로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의 주요 활동 영역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Furthermore, we commit to engaging with the main activity areas of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as set out in the new strategy of the network.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발행일 2022년 2월 21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ed.team@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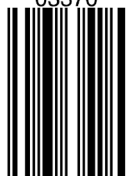
ISBN 979-11-90615-33-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2-BK-1

집필 SDG4-교육2030협의체



비매품/무료

03370



9 791190 615334

ISBN 979-11-90615-33-4